하나증권 리서치센터 Morning Brief

하루에 하나

2026.4.27

APRIL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원/달러 환율
1,477.50원 (-6.50원)

KOSPI
6,475.63 (-0.18, +0.00%)

KOSDAQ
1,203.84 (+29.53, +2.51%)

국고채 10년 금리
3.817 (+0.026%p)

Special Report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신고가 이후,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미국은 금리, 한국은 달러 [이재만]

Global Asset Strategy

New K-ETF 코스닥150 채권혼합, 미국AI 채권혼합, 은 액티브 [박승진]

김경환의 China Weekly 2021년(ChiNext)과 2016년(반내권)의 재현 [김경환]

기업분석

우리금융 실적은 부진했지만 CET 1 비율 대폭 개선. 비은행이 관건 [최정욱]

하나금융 큰폭의 NIM 상승과 대손비용 감소 효과가 만든 호실적 [최정욱]

KG모빌리티 하반기 해외 CKD 사업 본격화로 성장 모멘텀 확보 [송선재]

현대모비스 로봇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송선재]

현대위아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송선재]

기아 HEV로 실적을 지키고, SDV와 로보틱스로 밸류를 높인다 [송선재]

동국제강 예상보다 양호한 1Q26 영업실적 기록 [박성봉]

현대제철 1분기 영업실적 부진 [박성봉]

효성티앤씨 컨센 상회. 2Q26도 증익 유효 [윤재성]

HD현대마린솔루션 데이터센터까지 확대되는 사업 영역 [유재선]

한국항공우주 UJTS 사업 철수: 아쉬움은 단기 변수. 핵심은 KF-21 수출 [채운샘]

현대로템 1Q26 리뷰: 기대치 부합. 어쩌면 종전 수혜주 [채운샘]

산업분석

자동차 8조원 규모의 HMG 퓨처 콤플렉스 투자 [송선재]

Weekly

은행 은행별 차별화된 실적. 그러나 호실적에도 반응없는 주가 [최정욱]

철강금속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수출 유의미하게 감소 중 [박성봉]

반도체 2분기에도 하락 구간은 비중확대 기회 [김록호]

에너지/화학 중국까지 덮친 원유 조달 이슈 [윤재성]

2차전지 과거와 다른 두 가지 [김현수]

디지털자산 하방은 단단해지고 상단은 열린다 [이준호]

글로벌리서치

선진국포트폴리오 알파벳,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김재임, 김시현]

인텔 서버 내 CPU 비중 확대 중 [김록호]

필립모리스 1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심은주]

중국포트폴리오 CATL, 글로벌 기술 선도하는 차세대 LFP 배터리 공개 [백승혜]

URI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성수기로 진입합니다 [강재구]

단기투자유망종목

KB금융, 삼성SDI, HD현대일렉트릭, 한국금융지주, HD건설기계, 알루코, 심텍, 피에스케이홀딩스, RF머트리얼즈, 코세스

동 자료는 오늘 발간된 자료의 요약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각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hanafn.com

하나증권

2026년 4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하반기 주식시장 전망과 전략

신고가 이후, 무엇이 시장을 움직일까: 미국은 금리, 한국은 달러

Equity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Strategist 이재만 duke7594@hanafn.com

강세장의 조건은 유동성과 경기 및 이익 사이클 확장 유지다. 한편, 강세장의 특징은 상승과 하락 변동성이 모두 크다는 점과 강세장을 만든 주도주들은 강세장이 끝나기 전까지 주도주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S&P500지수: [시나리오 ①] 연준 기준금리 동결, S&P500 PER 상승이 없다면 22.4배(2026년 평균) 적용 시 예상 상단은 7,690이다. [시나리오 ②] 연준 기준금리 1~2회 인하, 2021~26년 PER 상단 평균 24.5배 적용 시 예상 상단은 8,640p이다.

높아진 국제 유가로 인해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지만, 연준(Fed)은 자국 경기도 고려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제조업과 서비스업 고용지수, 소비자심리지수, 주택시장심리지수 등은 위축 국면에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연준(Fed)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S&P500지수 내 이익 대비 PER이 크게 낮아진 업종을 중심으로 지수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익은 사상 최고치이지만, PER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반도체, 소프트웨어, 투자은행 그리고 이익 추정치가 최근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PER은 연중 고점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소재, 헬스케어 장비/서비스 업종이 지수 상승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준(Fed)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 약세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코스피는 반도체 외국인 수급 개선 여부와 PER 상승 여부가 지수 상단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피: [시나리오 ①] 연준 기준금리 동결, 반도체 PER 상승이 없다면 6.3배(2026년 평균)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 7,540p이다. [시나리오 ②] 연준 기준금리 1~2회 인하, 반도체 PER 8.0배로 상승 적용 시 코스피 예상 상단 8,470p까지도 가능하다.

과거 코스피 5번의 사상 최고치 돌파 당시, 해당 월(月)에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코스피의 다음 신고가 형성까지 주도 업종 역할을 했다.

반도체는 영업이익률 정점 통과 시기에 주가도 정점을 통과한다. 반도체의 영업이익률 컨센서스 기준 정점은 2027년 2분기로 예상된다. 반도체 외에 주가 상승 가능 업종을 꼽자면, 우선 달러 약세 시 외국인 순매수를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기계, 조선(방산), 하드웨어, 화학이다. 다만 업종별로 주가 상승 연차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보는 이익 변수가 다르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업 선별이 중요하다.

한편, WTI 가격이 배럴당 90달러에서 80달러로 하락 안정화되면, 2차전지와 에너지가 영업이익률 개선 기반으로 주가가 상승한다. 글로벌 신재생 에너지(ICLN US)와 배터리(LIT US) ETF로 자금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시 해당 ETF에 편입된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27일 | Global Asset Research

New K-ETF

코스닥150 채권혼합, 미국AI 채권혼합, 은 액티브

Global ETF

Compliance Notice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Global ETF 박승진 sj81.park@hanafn.com
RA 신민건 mingun.shin@hanafn.com

신규 상장 ETF(4/28): 1Q 코스닥150 채권혼합50 액티브, ITF 미국AI TOP10 채권혼합50, TIGER 은 액티브

1Q 코스닥150 채권혼합50 액티브: 한국의 대표 주가지수 중 하나인 코스닥150 지수와 단기 국공채를 조합하여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액티브 ETF이다. 주식 포트폴리오와 채권 포트폴리오에 각각 50%의 비중을 할당한다.

주식 포지션의 경우 코스닥150 지수를 기반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종목 비중 조절의 유연성을 가져가는 액티브 운용 방식으로 접근하여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형태가 되겠다. 채권 포지션은 잔존만기가 6개월 이하인 국공채로 구성한다. 만기 조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발행잔액이 500억원 이상인 국고채와 국민주택채권, 지방채, 특수채 등을 편입 대상으로 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채권 포지션이 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계좌에 100% 비중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ETF 종목이다. 비교지수 기준으로 주식과 채권 포트폴리오 50% 비중의 조정 작업은 매일 진행된다. 0.63%의 총 보수가 적용되는 액티브 ETF이다.

ITF 미국AI TOP10 국채혼합50: 미국의 AI 관련 기업들과 국고채를 함께 조합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채권혼합형 패시브 ETF이다. 미국에 상장된 AI 산업 관련 종목들 10개로 만들어진 주식 포트폴리오를 50%의 비중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50% 비중은 우리나라의 국고채로 구성한다.

AI 산업 관련 키워드(AI 플랫폼, AI 서비스, 클라우드AI, 생성형AI, 추천시스템, 인공지능기술, 컴퓨터 비전, 자연어처리 등)들을 활용하여 산출된 유사도 점수 상위 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순으로 10개 종목들을 주식 포트폴리오에 편입한다. 채권 포지션의 경우 잔존만기가 1.5년 이상 2년 이하의 2개 종목과 2년 국고채 지표물을 편입 대상으로 선정한다. 주식 포트폴리오는 20%의 Cap Rate을 적용하여 최대 편입 비중을 제한하고, 채권 포트폴리오의 3개 종목들은 동일가중 방식 기준을 반영하여 배분한다.

마찬가지로 전체 포트폴리오의 채권 포지션이 50%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인해 퇴직연금 계좌에 100% 비중까지 채워 넣을 수 있는 ETF 종목이 되겠다. 주식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은 매년 6월과 12월의 미국 옵션만기일 익영업일에, 매월 10일마다 진행한다. 총 보수는 0.25%가 적용된다.

TIGER 은액티브: 국제 은 현물 가격을 추종하는 액티브 ETF이다. 'ICE Silver Spot 지수'를 비교지수로 하며, 미국과 캐나다, 런던, 호주 등에 상장되어 있는 은 현물 ETF 등에 투자하는 재간접 형태의 액티브 ETF 종목이 되겠다. 은의 경우 귀금속인 동시에 반도체, 전기차 등 다양한 산업에서의 수요가 존재하는 원자재이다. 총 보수는 0.30%이다.

도표 1. 1Q 코스닥150 채권혼합50 액티브, ITF 미국AI TOP10 채권혼합50, TIGER 은 액티브 ETF의 종목 개요

ETF명	1Q 코스닥150 채권혼합50액티브	ITF 미국AI TOP10 국채혼합50	TIGER 은액티브
상장일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기초(비교)지수	코스닥150 단기국공채 혼합지수	FnGuide 미국AI TOP10 국채혼합 지수	ICE Silver Spot 지수
복제방법	실물(액티브)	실물(패시브)	실물(액티브)
1좌당 가격	10,000원	10,000원	10,000원
총 보수	0.63%	0.25%	0.30%
구성종목 수	400종목	주식 10종목, 채권 3종목	1종목
비중결정방식	▣ 코스닥 150 지수 50% 및 KIS 단기국공채 지수 50% 혼합 - 코스닥 150: 유동시가총액 가중 - KIS 단기국공채: 시가총액 가중	▣ 매일 하위지수의 편입비중을 5:5로 조정하는 Constant Mix 방식 - 주식지수 : 시가총액 가중방식 - 채권지수 : 동일 가중방식	국제 은 현물 100% (단일종목)
정기변경	▣ 지수 간 비중 매일 조정 - 코스닥 150: 6월, 12월 최종거래일의 다음날 - KIS 단기국공채: 매일	▣ 하위지수 각각의 종목교체 기준 반영 1) 주식지수 : 매년 6, 12월 미국시장 옵션만기일의 익영업일(미국거래일 기준) 2) 채권지수 : 매월 10일 또는 지수 내 종목수 3종목 미만인 경우	해당 없음

자료: KRX, 하나증권

김경환의 China Weekly

HANA Global Weekly | 2026.4.27

중국/신흥국 투자전략 김경환 khstyle11@hanafn.com
중국 분석 김성은 seongeunk@hanafn.com

2021년(ChiNext)과 2016년(반내권)의 재현

- **심천 창업판(ChiNext) 신고가 경신의 배경 :** 4월 이후 미국과 대한민국 등 주요국 증시 반등 과정에서 중화권 증시에서는 심천 ChiNext(창업판) 지수만이 유일하게 2021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CATL로 대표되는 심천 ChiNext지수는 2025년 이후 중국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선진 제조, 신재생, AI 인프라, 해외진출 관련주의 시총 비중이 중화권 주요 지수중에서 가장 높다. 2026년 이후 중화권 주요 지수를 압도하는 배경은 구체적으로, **첫째,** 중화권 증시가 2025년 유동성 장세에서 2026년 실적 장세로 전환되는 과도기에 '산업혁신-수출-AI-에너지' 사이클 확장 노출도가 높은 제조업(소재/중간재/자본재)의 시총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다(동일 기준 홍콩 항셍지수는 10%미만). **둘째**, 컴퓨팅 파워와 ESS 관련 업종 비중이 주요 지수 중에서 가장 높고, 2026-2027년 전체 지수의 이익 증가율 전망치 역시 20-30%대로 가장 높다. **셋째,** 2025년 이후 대외 고성장 분야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ChiNext지수의 상위 기업 집중도가 급격히 상승했다. 현재 시총 상위 7대 기업인 CATL(ESS), Innolight(광모듈), 신이성(광모듈), 동방재부(증권), 양광전원(태양광/ESS), 승홍과기(PCB), 텐푸통신(광소자)의 지수 비중은 2019년 10%에서 2026년 4월 기준 47%까지 상승했다. **넷째,** 중국 투자자가 펜데믹 이후 경제 성장 모델 전환 및 산업 경쟁력 상승에 대해 배팅하고 있는 양대 테마, '선진 제조업(전자/PC/미디어/통신/전력장비/기계/방산/바이오)'과 '해외 진출(出海)' 관련주의 노출도 역시 높다.
- **2026년 반내권(反内卷) 테마의 강세 지속, 공급 감축과 PPI 사이클의 시너지 :** 중국 정책 테마로는 '반내권 테마'(反内卷 : 소모적 가격 경쟁 억제)의 강세가 최근 6개월간 계속 유지되고 있다. 중국 공급과잉 업종의 60여개 대형주로 구성된 반내권 테마 지수(전기장비/화학/철강/건자재/석탄/비철금속)의 강세는 심천 ChiNext지수와 일부 중첩되지만, 전반적으로는 구조적인 정책 변화와 내부 공급 사이클이 견인하고 있다. 반내권 테마 관련 업종은 공통적으로 ①2022년 이후 Capa 감축과 재고조정 경험, ②2026년 중국 정부의 강력한 공급 감축과 탄소저감 의지 확인, ③중앙/지방의 지원 축소와 구조조정 가속화, ④중동사태 이후 원자재 가격 고공행진과 내부 추가 감산 기대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PPI 상승 효과와 상장기업 실적 관점에서 2026년은 결국 2016년-2017년의 '공급측 개혁' 사이클과 유사한 패턴을 보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 **2021년과 2016년 사이클이 주는 시사점 :** 2026년 심천 ChiNext지수의 신고가는 매크로 환경(리플레이션/수출호조/달러안정)과 산업 혁신(신에너지) 쏠림현상이라는 특징에서 2021년 중국 증시와 유사성이 있다. 동시에 2026년 반내권(反内卷) 테마의 강세는 강력한 공급 축소와 비관적인 수요 기대로 시작된 2016년 '공급측 개혁' 사이클 초기와 유사성이 있다. 2021년과 2016년 사이클의 특징을 현재에 대입한 종합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21년과 2016년 사이클 모두 수출과 제조업 경기의 안정 하에 PPI 상승 사이클과 기업이익 반등이 실적 장세로 이어졌다. **둘째,** 중국 PPI 상승 사이클은 촉발 요인(공급정책/수입물가)과 상관없이 수요 회복을 선행했으며, 강도의 차이는 있지만 최종적으로 가격 전가와 내수 진작으로 이어졌다. **셋째,** 펜데믹 이후 장기 사이클 관점에서 ChiNext지수와 반내권 테마의 강세는 주가가 새로운 성장 모델(테크/제조업/AI/서비스)과 산업 고도화(혹은 공급과잉 완화) 기대를 더 민감하게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2027년까지 달라진 매크로 환경(리플레이션-이익-내수)과 15차 5개년 계획 정책 드라이브 등을 통해 소수 테마의 과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기타 테크 지수(상해 과창판/홍콩 항셍테크)로의 매수세 확산, 장기 소외된 일부 내수 업종(대장주)의 저점 반등 가능성을 계속 높일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우리금융 (316140)

실적은 부진했지만 CET 1 비율 대폭 개선. 비은행이 관건

BUY (유지)

목표주가(12M)	43,000원
현재주가(4.24)	35,05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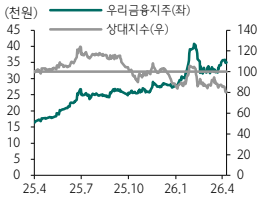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40,800/16,810
시가총액(십억원)	25,729.4
시가총액비중(%)	0.48
발행주식수(천주)	734,076.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12.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83.3
외국인지분율(%)	46.54
주요주주 지분율(%)	
우리금융지주우리사주 외 1 인	7.70
국민연금공단	7.0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4,562	4,915
순이익(십억원)	3,414	3,633
EPS(원)	4,486	4,818
BPS(원)	51,960	54,80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0,440	10,957	12,160	12,592
세전이익	4,223	4,116	4,383	4,741
지배순이익	3,086	3,141	3,159	3,426
EPS	4,157	4,281	4,342	4,750
(증감율)	24.7	3.0	1.4	9.4
수정BPS	45,933	49,107	55,745	60,979
DPS	1,200	1,360	1,530	1,740
PER	3.7	6.5	8.1	7.4
PBR	0.33	0.57	0.63	0.57
ROE	9.4	9.0	8.2	8.1
ROA	0.6	0.6	0.5	0.5
배당수익률	7.8	4.9	4.4	5.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각종 비경상 비용 요인 발생으로 1분기 실적은 전부문에서 상당히 부진했던 편

우리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43,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순익은 YoY 2.1% 감소한 6,038억원을 시현해 컨센서스와 우리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 실적이 저조했던 배경은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우리소다라은행에서 회계감사법인의 보수적 회계 처리 권고에 따라 1,380억원에 달하는 충당금을 추가 적립했고, 외화환산손 530억원과 명예퇴직비용 1,830억원 등 대규모 비경상 비용 요인 발생 때문이다. 1) 은행 원화대출은 QoQ 0.7% 성장했는데 그동안 지속적으로 역성장해왔던 기업대출이 1.3% 늘어나면서 대출성장을 견인했고, 2) 은행 NIM은 2bp 상승해 순이자이익은 전분기 수준을 유지했다. 3) 수수료이익은 소폭 증가했지만 증권업수수료 등에서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경쟁사들과 비교시 상당히 밋밋했으며, 4) 대출채권매각익 감소와 외화환산손 발생 등으로 기타비이자이익도 예상을 하회했다. 5) 그룹 판관비는 명예퇴직비용과 교육세율 인상, 보험사 편입 영향과 증권 인력확충 및 인프라투자 지속 등으로 YoY 8.9% 증가했다. 6) 그룹 대손비용은 5,270억원을 기록했는데 우리소다라은행 충당금을 제외한 경상 대손비용은 4,000억원을 하회했다. 전반적으로 1분기 실적은 크게 부진했던 것으로 평가한다

CET 1 비율 13.6%까지 상승해 이제 경쟁사 상회 수준. 주주환원율 큰폭 확대 전망

그러나 1분기 CET 1 비율이 13.60%로 QoQ 71bp 급등했다. 물론 여기에는 유형자산 재평가 영향 60bp가 작용하기는 했지만 이를 제외해도 11bp 상승했다. 큰폭의 환율 상승에도 하락 압력이 -10bp에 불과했고 이를 은행 자본규제 합리화 방안(비상장 주식 위험가중치 하락 +10bp) 효과가 상쇄한데다 비은행 바젤 3 경과 규정 영향이 거의 없었으며, OCI 변동 등 기타 영향이 +19bp 있었기 때문이다. 생산적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비율 하락 압력을 걱정했지만 자산 리밸런싱 및 유형자산 효율화 등으로 이제는 표면적으로는 경쟁사를 상회하는 자본비율을 보유하고 있다. CET 1 비율이 13%를 크게 상회하면서 올해 총주주환원율도 대폭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며, 배당확대 외에도 하반기 중 1,500~2,000억원 내외의 추가 자사주 매입 등으로 총주주환원율을 올해에는 46~47%대로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한다

비은행 경쟁력 강화 및 이익 기여도 확대 가시화되어야 multiple 추가 도약 가능

1분기 실적 부진을 감안해 우리금융의 올해 이익추정치를 3.16조원으로 하향한다. 보험사 편입에 따른 이익다각화와 그룹 ROE 개선 효과 등을 기대했지만 1분기 동양생명 순익이 250억원에 그치는 등 시간은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측은 전일 우리투자증권 1조원 증자와 동양생명 완전자회사화(소규모주식교환으로 교환비율은 1:0.2521. 우리금융 8.7백만주 신주 발행)를 결정했다. 비과세 배당 및 급격한 자본비율 상승 등에 따라 2025년 이후 대형은행지주사 중 주가상승률이 가장 높았는데 비은행자회사들의 경쟁력 강화 및 이익기여도 확대 등이 가시화되어야 multiple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하나금융 (086790)

큰폭의 NIM 상승과 대손비용 감소 효과가 만든 호실적

BUY (유지)

목표주가(12M)	157,000원
현재주가(4.24)	123,3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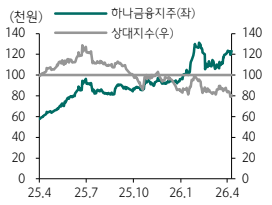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131,300/60,800
시가총액(십억원)	33,829.5
시가총액비중(%)	0.64
발행주식수(천주)	274,36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80.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13.5
외국인지분율(%)	67.89
주요주주 지분율(%)	
국민연금공단	8.82
The Capital Group Companies, Inc. 외 31 인	6.7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5,801	6,120
순이익(십억원)	4,287	4,508
EPS(원)	15,539	16,406
BPS(원)	175,454	184,64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총영업이익	10,687	11,377	12,075	12,689
세전이익	5,052	5,459	5,875	6,173
지배순이익	3,739	4,003	4,274	4,480
EPS	13,131	14,589	15,772	16,534
(증감율)	12.2	11.1	8.1	4.8
수정BPS	151,063	164,427	181,039	197,573
DPS	3,600	4,105	4,600	4,930
PER	4.3	6.5	7.8	7.5
PBR	0.38	0.58	0.69	0.63
ROE	9.1	9.2	9.2	8.8
ROA	0.6	0.6	0.6	0.6
배당수익률	6.3	4.3	3.7	4.0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NIM과 대손비용이 돋보였던 양호한 실적. 분기 경상 순익은 약 1.3조원대 수준 평가

하나금융에 대한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7,000원을 유지한다. 1분기 순익은 YoY 7.3% 증가한 약 1.21조원으로 우리예상치에 부합한 양호한 실적을 시현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환산손 823억원과 홍콩 ELS 과징금 관련 충당부채 343억원 추가 적립 등의 비경상 요인을 제외한 분기 경상 순익은 약 1.3조원대 수준이었던 것으로 판단한다. 1) 1분기 은행 원화대출이 QoQ 0.9% 성장했고, 은행 NIM은 은행 중 가장 큰폭인 6bp나 상승해 그룹 순이자이익이 QoQ 5.1%, YoY로는 10.2%나 대폭 증가했으며, 2) 자본시장 호조에 힘입어 수수료이익도 QoQ 10.8% 증가했다. 다만 증권중개수수료 QoQ 412억원 증가와 신탁보수 192억원 증가는 경쟁사들에 비하면 다소 미진했다. 3) 그룹 매매평가익은 YoY 2,540억원 감소해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유가증권관련손실과 외화환산손실 발생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 판관비는 특별퇴직비용과 교육세율 인상 영향이 각각 785억원과 250억원 있었지만 YoY 4.8% 증가에 그쳤다. 5) 한편 그룹 대손비용은 2,37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는데 약 580억원 내외의 충당금 환입 요인 등을 감안해도 3,000억원을 하회해 매우 양호했다. 높은 담보 비중으로 NPL 증가에도 추가 적립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1분기 호실적은 큰폭의 NIM 상승과 대손비용 감소 효과가 견인했다

CET 1 크게 하락했지만 2분기 회복 가능. 큰폭의 NIM 상승세는 2분기에도 이어질 듯

다만 그룹 CET 1 비율은 13.09%를 기록해 QoQ 29bp 다소 큰폭으로 하락했는데 이는 환율 약세 요인이 -18bp 작용한데다 비은행 바젤 3 경과 규정 영향이 -9bp 있었으며, 대출성장에 따른 RWA 증가와 주주환원에 따른 하락 요인 등이 손익 효과 +42bp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외장기지분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효과 +11bp가 실적 발표 후 최종수치에 수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에 따른 상승 효과도 2분기 중 약 +15~20bp 반영될 것으로 추정되어 2분기 CET 1 비율은 13.3~13.4%대로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한편 1분기 중 큰폭의 NIM 상승은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 영향 외에도 과거 저금리로 운용되던 원화채권 re-pricing과 고수익성자산으로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효과 때문인데 NIM 관리 노력 지속성 등을 감안할 때 2분기에도 큰폭의 NIM 상승세가 한번 더 이어진 이후 하반기 중 둔화될 전망이다. 올해 연간 NIM은 전년대비 10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

비은행 이익 턴어라운드 시작되었고 2027년 가속화 예상. 가격 매력도 충분한 상태

1분기 비은행 CRE 감액손은 280억원 내외에 불과했다. 2분기에 다시 늘어날 수 있지만 2026년 중에는 거의 일단락될 전망이다. 자본시장 호조 등으로 비은행 이익 턴어라운드가 시작되었고, 2027년에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여기에 환율 관련 우려가 완화될 수 있고, PBR Gap은 경쟁사들과 다시 벌어진 상태이다. 가격 매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

KG모빌리티 (003620)

하반기 해외 CKD 사업 본격화로 성장 모멘텀 확보

Not Rated

목표주가(12M)	N/A
현재주가(4.24)	4,18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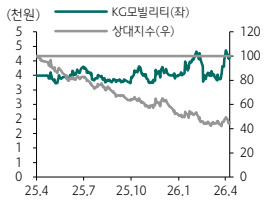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4,360/3,225
시가총액(십억원)	845.9
시가총액비중(%)	0.02
발행주식수(천주)	202,374.9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974.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2.0
외국인지분율(%)	19.06
주요주주 지분율(%)	
케이지에코솔루션 외 2 인	54.36

Consensus Data

	2027	2028
매출액(십억원)	N/A	N/A
영업이익(십억원)	N/A	N/A
순이익(십억원)	N/A	N/A
EPS(원)	N/A	N/A
BPS(원)	N/A	N/A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2	2023	2024	2025
매출액	3,424	3,780	3,783	4,243
영업이익	(117)	5	12	54
세전이익	(68)	1	47	57
순이익	(68)	15	46	57
EPS	(1,206)	79	238	283
증감율	적지	흑전	201.3	18.9
PER	(11.7)	117.6	17.0	12.4
PBR	2.4	1.6	0.6	0.5
EV/EBITDA	15.1	9.6	5.4	5.4
ROE	(6.2)	1.4	3.2	3.8
BPS	5,827	5,804	7,317	7,465
DPS	0	0	0	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1Q26 Review: 판매대수 글로벌 +4% (YoY), 영업이익률 1.9% 기록

KG모빌리티의 2026년 1분기 글로벌 판매대수는 27.1천대(+4% (YoY))를 기록했는데, 내수가 11.5천대로 40% (YoY) 증가했고, 수출(CKD 포함)이 15.6천대로 12% (YoY) 감소했다. 내수는 무쏘 신차 출시와 전동화 모델의 판매 확대 등으로 급증했고, 수출은 현지 재고 최적화를 위한 선적 축소로 감소했다. 특히, 동유럽/CIS 지역 수출이 78% (YoY) 감소했는데, 튀르키예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생산을 늘리면서 동유럽에서 인기있는 코란도 모델에 대한 생산을 축소한 결과이다. 중국 완성차들의 동유럽 진출에 따른 부정적 영향도 받았다. 차종별로는 내연기관차가 37% (YoY) 감소한 13.9천대, HEV/EV는 267% (YoY) 증가한 12.5천대, CKD는 0.6천대를 기록했다. 별도 기준 1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1.14조원/217억원(영업이익률 1.9%, +0.7%p (YoY))을 기록했다. 물량(+4%) 및 ASP 상승(+20%)으로 매출액이 25% (YoY) 증가했다. 영업이익 변동에는 감가상각비(-98억원)/인건비(-72억원)/이산화탄소 패널티(-22억원) 등이 부정적이었고, 환율/믹스(+89억원)/비용감소(+132억원)/부품/기타매출(+95억원) 등이 긍정적이었다.

컨퍼런스 콜의 주요 내용: CKD 시작은 베트남 7월초, 사우디아라비아 8월말

KG모빌리티는 중동 이슈에 따른 물류 영향은 없지만(수에즈 운하를 이용하기 때문), 이스라엘 물량은 소폭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운송 업체와 단가 인상에 대해 협의했지만, 관련 추가 비용이 크지 않아 실적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KG모빌리티는 CKD 사업과 관련해서 베트남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분기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 베트남은 6월말에서 7월초로 일정 차질이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전쟁 영향 등으로 기존 6월말에서 8월 말로 2개월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참고로 베트남 CKD 사업은 약 1.5만대의 생산능력을 확보해 2026년/2027년 0.8만대/1.0만대 생산을 계획 중이었고, 사우디아라비아 CKD 사업은 2026년/2027년 0.33만대/0.8만대 생산을 목표 중이었다. 지난 2월말 CEO Investor Day에서 2026년 사업계획 목표로 '판매대수 137.3천대(+24%), 이중 내수/수출이 각각 42.0천대(+4%)/82.0천대(+20%), 매출액 5.0조원 이상(+18%), 영업이익률 2.2% 이상(+1.3%p)'을 제시했다.

1분기 실적은 긍정적.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위한 조건들을 증명할 필요

현재 주가는 P/B 0.56배의 밸류에이션을 기록 중이다. 물량 증가와 믹스/환율에 기인한 ASP 상승으로 1분기 매출액/수익성이 상승한 것과 하반기 해외 CKD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성장 모멘텀이 강화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반면, 절대적인 이익률이 낮고, 지역 및 모델별 판매대수에 따른 수익성 변동성이 있다는 점은 Valuation 할인 요인이다. 추세적인 주가 상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판매대수/매출액 증가에 기반한 수익성의 추가 개선이 우선되고, 이 후 전기차/자율주행차 시대에서의 지속 가능성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

현대모비스 (012330)

로봇 현금흐름을 만들 수 있는 회사

BUY (유지)

목표주가(12M)	570,000원
현재주가(4.24)	42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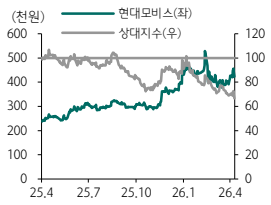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529,000/242,000
시가총액(십억원)	38,334.5
시가총액비중(%)	0.72
발행주식수(천주)	90,732.6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339.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48.3
외국인지분율(%)	43.38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 외 7 인	32.70
국민연금공단	9.5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5,149.2	69,713.5
영업이익(십억원)	3,766.8	4,257.1
순이익(십억원)	4,377.0	4,821.8
EPS(원)	48,113	53,009
BPS(원)	593,570	642,33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57,237.0	61,118.1	64,683.8	68,028.1
영업이익	3,073.5	3,357.5	3,637.0	3,922.7
세전이익	5,264.5	5,115.2	5,583.3	6,013.1
순이익	4,055.6	3,655.8	4,038.0	4,348.8
EPS	43,480	39,682	44,503	48,565
증감율	19.65	(8.74)	12.15	9.13
PER	5.44	9.40	9.94	9.11
PBR	0.47	0.68	0.77	0.70
EV/EBITDA	3.68	5.69	6.35	5.54
ROE	9.35	7.68	7.93	7.98
BPS	501,648	545,787	578,390	628,172
DPS	6,000	6,500	6,500	6,7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로봇 부품들에 대한 현금흐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

현대모비스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7만원(목표 P/E 13배)을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는데, AS 부문의 이익률이 예상보다 높았지만, 모듈/핵심부품 부문은 고객사 물량 둔화, 미국 전기차 수요 감소, 그리고 반도체 가격 상승 등으로 예상보다 부진했다. 2분기 이후 재료비/물류비 상승이 있겠지만, 관세 감소, 원가 절감, 판가 인상, 그리고 고객사로부터의 비용 회수 등으로 만회할 것으로 예상한다. 자동차 사업에서는 비계열 고객의 확대, 제품 고부가화, 원가구조 개선, 그리고 전동화 제품군의 성장 등이 기업가치 상승을 이끌 것이다. 로봇 사업에서는 그룹 내 휴머노이드 로봇 관계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BD)의 지분가치가 상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로봇 부품들에 대한 직접 생산을 진행하고 있어 로봇 사업으로부터 가장 현실적인 현금흐름 가치를 만들 수 있는 회사라는 점이 차별적 매력이다. BD의 2028년 로봇 양산 일정을 고려했을 때, 2026년 하반기에 관련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에 진입하고, 이는 주가 Valuation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다.

1Q26 Review: 영업이익률 5.2% 기록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다(영업이익 기준 -5%). 매출액/영업이익은 5%/3% (YoY) 증가한 15.6조원/8,026억원(영업이익률 5.2%, -0.1%p (YoY))이었다. 모듈/핵심부품 매출액은 5% (YoY) 증가한 12.0조원이었다. 이 중 모듈조립은 고객사 물량 감소(-3%)에도 믹스 개선으로 5% (YoY) 증가했고, 부품제조는 비계열 물량과 고부가 전장품 확대로 3% (YoY) 증가했다. 전동화 매출액은 국내/유럽 친환경차 물량 증가(+12%)에 힘입어 8% (YoY) 증가했다. AS 매출액은 7% (YoY) 증가한 3.36조원였는데, 유럽(+15%)/미주(+8%) 수요가 좋았고, 판가 인상과 환율(EUR +12%, USD +1%)이 기여했다. 전체 영업이익률은 5.2%, 모듈/AS가 각각 -1.0%/26.3%였다. 모듈은 완성차 물량 감소와 유럽 전동화 양산 초기 비용으로 적자였다. AS는 매출 증가와 우호적 환율에 힘입어 2개 분기만에 26%대 이익률로 복귀했다. 한편, 영업외 지분법이익은 관계사 이익 감소로 4,005억원 -31% (YoY)이었다. 1분기 핵심부품 수주는 연간 목표인 89.7억달러의 4%인 3.16억달러였다.

컨퍼런스 콜의 내용: 로봇 부품에 대한 공급망을 관리

현대모비스는 1분기 각종 비용 상승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도체 가격 상승의 영향은 1분기 300억원, 2026년 연간 2,000억원 규모로 예상 중인데, 고객사와의 비용 보전 및 정산 협상을 통해 만회할 목표이다. 미국 관세는 1분기 590억원 반영되었는데, 5~6개월의 재고 효과로 25% 관세율이 반영된 것이고, 2분기 이후 15% 관세율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 중이다. 물류비의 경우, 현재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율이 2% 미만으로 과거 급등 시기의 7~8% 대비 낮아져 있다고 밝혔다.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하고, 관세 및 인플레이션 비용을 반영해 적정한 판가 인상도 병행할 계획이다. 로봇 핵심 부품은 전체 공급망을 관리하는 구조하에서 액츄에이터는 내재화 중심으로 준비 중이고, 그리퍼 등 추가 아이템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BD의 미국 생산 법인에 대한 지분투자 여부는 미확정이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

현대위아 (011210)

잘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BUY (유지)

목표주가(12M)	100,000원
현재주가(4.24)	82,7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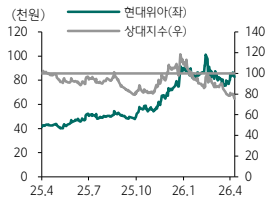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101,300/40,050
시가총액(십억원)	2,249.0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27,19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43.6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5
외국인지분율(%)	16.15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4 인	40.74
국민연금공단	9.3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951.7	9,603.8
영업이익(십억원)	247.6	295.8
순이익(십억원)	192.1	232.8
EPS(원)	7,116	8,648
BPS(원)	143,053	150,278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8,180.9	8,481.6	8,927.1	9,310.6
영업이익	218.8	204.4	219.8	241.2
세전이익	177.5	181.3	175.0	208.6
순이익	120.4	99.0	107.4	128.1
EPS	4,429	3,641	3,950	4,709
증감율	31.70	(17.79)	8.49	19.22
PER	8.53	20.79	20.94	17.56
PBR	0.28	0.56	0.60	0.58
EV/EBITDA	3.02	4.28	4.94	4.62
ROE	3.45	2.75	2.94	3.43
BPS	135,900	135,763	138,540	142,075
DPS	1,100	1,200	1,200	1,2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사업구조의 변화가 진행되는 중

현대위아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0만원(목표 P/B 0.7배)을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수준이었다. 산업수요 둔화로 고객사 생산이 정체되면서 물량 증가가 크지 않고, 지정학적 이슈로 재료비도 상승하면서 2026년 수익성은 기존 예상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회사가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산업 환경이 악화된 영향이다. 현대위아는 구동/등속부품에서는 비계열 물량의 증가와 믹스 개선이 진행되고 있고, 엔진에서는 HEV 엔진이 추가되었으며, 전략 신사업인 열관리 제품에서는 제품군 확대와 납품 모델의 증가가 이어질 것이다. 또한, 공작기계 사업을 매각했고, 방산부품 사업도 매각을 검토하는 등 사업영역 재편도 진행되고 있어 회사 내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ROE 개선을 통한 Valuation Multiple의 상승도 예상된다.

1Q26 Review: 영업이익률 2.4% 기록

현대위아의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 수준이었다(영업이익 기준 -3%). 7월 매각된 공작기계 사업을 제외한 기준으로 매출액/영업이익은 6%/6% (YoY) 증가한 2.18조원/516억원, 영업이익률 2.4%(+0.0%p (YoY))를 기록했다. 차량부품의 매출액/영업이익은 1.99조원/315억원(+5%/-10% (YoY)), 영업이익률은 1.6%(-0.2%p (YoY))를 기록했다. 엔진 부문이 국내/러시아 감소를 멕시코 공장의 감마2 엔진의 증가로 만회하면서 0% (YoY) 증가한 가운데, 모듈/구동부품 부문이 국내 물량 증가와 믹스 개선으로 각각 7%/13% (YoY) 증가했다. 차량부품 부문의 이익률 하락은 러시아 공장의 가동률 하락과 열관리 양산 초기 비용 등 때문이다. 기타 부문의 매출액/영업이익은 1,854억원/201억원(+15%/+48% (YoY)), 영업이익률은 10.8%(+2.3%p (YoY))였다. 솔루션(FA/산업로봇)이 5% (YoY) 증가했고, 방산 매출액은 23% (YoY) 증가했다. 세전이익은 530억원으로 49% (YoY) 감소했는데, 루블화 약세로 외환손익이 562억원 감소한 영향이다.

2Q26 Preview: 영업이익률 2.6% 전망

2분기 매출액/영업이익은 6%/6% (YoY) 증가한 2.31조원/598억원, 영업이익률은 원재료비 증가의 영향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낮은 2.6%(+0.0%p (YoY))가 예상된다. 엔진 부문에서는 고객사 생산 둔화와 부품 공급사 화재로 인한 엔진부품 수급 차질, 그리고 러시아 공장의 물량 감소가 예상되지만, 중국 내 고객사의 생산/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멕시코 공장에서 감마2 T-GDI HEV 엔진의 양산 시작(6월)이 가세할 것이다. 모듈/구동/등속부품 부문은 국내 생산 차질의 영향이 소폭 있을 것이고, 열관리 부문에서는 기존 적용 차량의 생산 증가가 기대된다. 기타 부문에서는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로 솔루션 매출이 감소하겠지만, 방산 부품의 수출 물량이 증가하면서 만회될 것이다. 3분기 이후로는 멕시코 공장의 엔진 매출 증가와 국내 열관리 부문에서 공조 물량의 증가(PV5/EV2/스타리아/소형EV 등으로 적용 차종의 확대)가 기여할 것이다. 2026년 매출액/영업이익은 3%/8% 증가한 8.93조원/2,198억원, 영업이익률은 0.1%p 상승한 2.5%로 예상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

기아 (000270)

HEV로 실적을 지키고, SDV와 로보틱스로 밸류를 높인다

BUY (유지)

목표주가(12M)	210,000원
현재주가(4.24)	153,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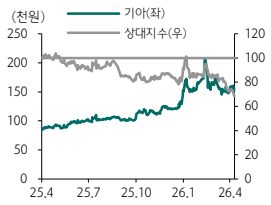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206,000/87,100
시가총액(십억원)	59,889.4
시가총액비중(%)	1.13
발행주식수(천주)	390,413.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437.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36.0
외국인지분율(%)	38.53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5 인	36.99
국민연금공단	6.77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122,155.0	128,301.0
영업이익(십억원)	10,083.3	11,148.8
순이익(십억원)	8,328.3	9,115.4
EPS(원)	21,395	23,409
BPS(원)	172,767	189,86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07,448.8	114,140.9	124,189.3	127,697.9
영업이익	12,667.1	9,078.1	9,753.2	10,245.4
세전이익	13,500.2	10,241.4	10,963.7	11,715.8
순이익	9,773.0	7,561.0	8,094.2	8,649.5
EPS	24,413	19,111	20,732	22,664
증감율	12.14	(21.72)	8.48	9.32
PER	4.12	6.37	7.40	6.77
PBR	0.71	0.77	0.91	0.81
EV/EBITDA	1.42	2.38	2.99	2.51
ROE	19.09	12.92	12.66	12.42
BPS	141,271	157,170	169,341	189,737
DPS	6,500	6,800	6,800	6,800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자동차 제조/판매 가치 + 모빌리티/AI 기술 프리미엄 기대

기아에 대한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21만원(목표 P/E 10배)을 유지한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했지만, 당사 예상치에는 부합했다. 2분기 이후 지정학적 이슈로 재료비 부담이 늘겠지만, 환율 상승과 신차 투입을 통한 가격/물량 효과로 만회하면서 수익성을 방어할 것이다. 특히, 2026년에는 SUV 및 HEV/EV 차종의 신차가 다수인 바 관련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주가는 P/E 7배 중반의 Valuation과 4.4%의 예상 배당수익률(주당 배당금 6,800원)로 업종 내 상대적으로 양호해 자동차 제조/판매 이익만으로도 상승 여력이 있다.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모빌리티/AI 기술 서비스 기업으로서의 Valuation Premium이 반영되어야 하고, 이는 하반기 이후 자율주행 기술의 검증 및 빅테크 기업들과의 제휴, 그리고 관계사인 보스턴다이내믹스(BD)의 기업가치 상승 등을 통해 진전될 것으로 전망한다.

1Q26 Review: 영업이익률 7.5% 기록

기아의 1분기 실적은 관세 및 인센티브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부진했지만, 하나증권 리서치의 Preview에 부합했다(영업이익 기준 1Q26 2.21조원 vs. 하나증권 추정치 2.20조원). 글로벌 도매판매와 중국 제외 도매판매는 각각 78.0만대/76.1만대(+1%/+1% (YoY))였고, 매출액으로 반영되는 연결 매출대수는 0.4% (YoY) 증가한 74.0만대였다. 친환경차 소매판매는 33% (YoY) 증가한 23.2만대, 이 중에서 HEV와 EV가 각각 13.8만대/9.4만대(+33%/+34% (YoY))였다. 매출액/영업이익은 29.5조원/2.21조원(+5%/-27% (YoY)), 영업이익률은 7.5%(-3.2%p (YoY))를 기록했다. 물량 정체에도 ASP 상승(연결/내수 ASP +4.9%/+4.1% (YoY))이 만회했다. 매출원가율은 80.3%로 2.0%p (YoY) 상승했지만, 관세 영향(2.5%p)을 제외하면 77.8%(-0.5%p)였을 것이다. 판매보증비가 1.4%p (YoY) 상승하면서 판관비율이 12.2%로 1.2%p (YoY) 상승했다. 결과로 영업이익률은 3.2%p (YoY) 하락했다. 영업이익 변동에는 가격(+490억원), 믹스(+1,430억원), 환율(+930억원) 등이 긍정적이었지만, 인센티브 증가(-2,150억원), 기타 비용(-750억원) 등이 부정적이었고, 관세도 -7,550억원이 반영되었다.

컨퍼런스 콜의 내용: HEV 판매 강화. SDV 및 로봇 사업의 방향성 재확인

기아는 2026년 도매판매 목표가 335만대(+6.8%)인데, 1분기 판매는 사업계획을 초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분기 이후 시장별 대응 전략을 보면, 미국에서는 혼류 생산을 통해 HEV 생산량을 늘리고, 텔루라이드/셀토스 신차에 HEV 라인업을 강화하는 등 HEV 판매를 85% 늘린다는 목표이다. 유럽에서는 EV2/EV4 현지 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PV5와 셀토스/K4 신차(ICE/HEV)도 투입한다. 인도에서는 GST 인하로 쏘넷이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셀토스 및 EV/HEV 신차를 출시할 계획이다. 인센티브는 미국에서 큰 변동이 없는 반면, 유럽에서는 중국 전기차들과의 경쟁으로 늘었고, 당분간 1분기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 중이다. 로봇 사업에 대해서는 BD의 생산 법인인 Robotics America에 참여한다는 방향성은 정해졌으나, 출자 규모/방식/주체 등 세부 사항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DV의 경우, 2026년 하반기 중 SDV Pace Car 제작, 2027년 개발 완료, 2028년초 출시의 일정에 큰 변화가 없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 Earnings Review

동국제강 (460860)

예상보다 양호한 1Q26 영업실적 기록

BUY (유지)

목표주가(12M)	14,000원
현재주가(4.24)	11,81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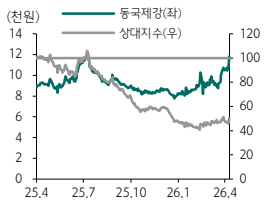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12,170/7,770
시가총액(십억원)	585.9
시가총액비중(%)	0.01
발행주식수(천주)	49,608.0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29.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1
외국인지분율(%)	25.62
주요주주 지분율(%)	
동국홀딩스 외 8 인	33.70
JFE STEEL INTERNATIONAL EUROPE B.V.	8.7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3,439.3	3,616.0
영업이익(십억원)	85.2	114.2
순이익(십억원)	29.6	61.6
EPS(원)	596	1,242
BPS(원)	37,311	38,204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527.5	3,203.4	3,488.1	3,653.9
영업이익	102.5	59.4	84.6	131.0
세전이익	44.9	10.3	36.0	70.9
순이익	34.8	8.2	27.9	55.6
EPS	702	166	562	1,120
증감율	(85.64)	(76.35)	238.55	99.29
PER	11.40	49.64	21.01	10.54
PBR	0.23	0.22	0.31	0.31
EV/EBITDA	4.08	9.37	8.64	7.05
ROE	2.04	0.46	1.48	2.92
BPS	34,323	38,002	38,119	38,641
DPS	600	400	600	60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봉형강 부진 vs. 후판 선방

2026년 1분기 동국제강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8,572억원(YoY +18.1%, QoQ -5.2%)과 214억원(YoY +401.8%, QoQ +2,874.1%)으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 146억원을 상회했다.

1) 지난 4분기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한 공격적인 영업전략에 힘입어 봉형강 판매가 67.4만톤(YoY +22.3%, QoQ +4.5%)을 기록하면서 고정비 절감 효과가 확대되었고, 중국산 수입규제에 따른 판매 증가로 후판 판매도 23.8만톤(YoY +16.7%, QoQ +0.8%)을 기록했다. 2) 제강(봉형강) 원재료단가가 전분기대비 7% 상승했지만 봉형강 ASP는 1% 상승에 그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었다. 한편, 3) 후판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압연 원재료단가가 전분기대비 1% 상승했지만 ASP가 3%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확대되었다. 한편, 보수비용이 10억원 수준으로 4분기대비 크게 축소되었다.

2분기 봉형강 수익성은 개선, 후판은 축소 전망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영향으로 봉형강과 후판 판매가 증가할 전망으로 봉형강과 후판 판매는 각각 70.4만톤(YoY +2.2%, QoQ +4.5%)과 24.3만톤(YoY +3.9%, QoQ +2.1%)이 예상된다. 한편, 국내 제강사들의 적극적인 감산과 수출 확대 등의 영향으로 철근 유통가격이 올해 들어 상승세를 지속하며 연초대비 현재 가격이 20% 가까이 상승했다. 국내 철근 재고가 급격히 감소한 가운데 성수기 돌입으로 철근 가격이 한동안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을 감안하면 2분기 봉형강 스프레드는 확대가 기대된다. 그에 반해 후판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원재료 단가 인상으로 스프레드 소폭 축소가 예상된다. 또한 2분기 대보수 예정으로 보수비용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이를 종합하면 동국제강의 2분기 영업이익은 204억원(YoY -32.0%, QoQ -4.7%)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14,000원 유지

동국제강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14,000원을 유지한다. 지난해 하반기 극도로 부진했던 철근시장의 회복이 진행 중이고 후판의 경우에도 중국산 수입 규제와 더불어 최근 국내 기타 판재류 가격 상승 흐름에 동승하여 가격이 상승세로 전환되면서 동국제강의 올해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현재 주가는 PBR 0.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2026년 04월 27일 | 기업분석_ Earnings Review

현대제철 (004020)

1분기 영업실적 부진

BUY (유지)

목표주가(12M)	50,000원
현재주가(4.24)	42,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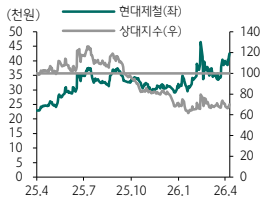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46,500/24,050
시가총액(십억원)	5,671.4
시가총액비중(%)	0.11
발행주식수(천주)	133,445.8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1,374.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52.6
외국인지분율(%)	18.32
주요주주 지분율(%)	
기아 외 6 인	35.96
국민연금공단	9.89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806.9	24,329.1
영업이익(십억원)	541.1	791.8
순이익(십억원)	257.5	443.4
EPS(원)	1,879	3,250
BPS(원)	148,017	150,860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23,226.1	22,733.2	24,444.3	24,537.2
영업이익	159.5	219.2	462.9	744.4
세전이익	(59.5)	(43.2)	283.6	567.4
순이익	(11.6)	(6.9)	191.8	386.4
EPS	(87)	(52)	1,437	2,896
증감율	적전	적지	흑전	101.53
PER	(241.95)	(597.12)	29.58	14.68
PBR	0.15	0.21	0.29	0.29
EV/EBITDA	6.14	6.17	6.06	5.32
ROE	(0.06)	(0.04)	0.99	1.97
BPS	142,610	146,001	146,945	149,102
DPS	750	500	750	750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1Q26 스프레드 대폭 축소로 별도 영업이익 적자, 자회사들은 수익성 개선

2026년 1분기 현대제철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조원(YoY +3.2%, QoQ +4.6%)과 157억원(YoY 흑.전, QoQ -63.7%)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560억원을 하회했다.

1) 판재류 중심의 판매 증가로 1분기 전체 판매량은 426만톤(YoY +3.3%, QoQ +5.8%)을 기록하며 고정비가 축소되었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물류비가 대략 300억원 증가했다. 2) 고로는 원재료 투입단가가 1.0만원/톤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하에 따른 제품 Mix 악화로 ASP가 4.0만원/톤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었다. 3) 전기로는 ASP가 0.5만원/톤 상승에 그친 반면, 원재료 투입단가가 2.5만원/톤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별도로 72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4) 한편, 주요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의 수익성이 자체 개선됨과 동시에 관세 환급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했고 해외스틸서비스센터의 미실현이익이 대규모로 반영되면서 연결 영업이익 적자를 방지했다.

2분기는 판매 증가와 스프레드 확대로 수익성 개선 전망

2분기는 계절적 성수기 효과로 판재류와 봉형강 모두 판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제철의 2분기 전체 강재 판매량은 456만톤(YoY +0.7%, QoQ +6.9%)을 기록하며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이 기대된다. 다만 중동 리스크 지속에 따른 물류비 부담이 1분기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수익성 측면에서 고로 원재료 투입단가가 1만원/톤 상승이 예상되나 열연 등 주요 제품들의 공격적인 가격 인상에 힘입어 고로 ASP는 4만원/톤 상승하여 스프레드가 확대될 전망이다. 전기로 또한 철근 중심의 가격 상승으로 스프레드가 대략 4만원/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종합하면 현대제철의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889억원(YoY -12.7%, QoQ +465.9%)으로 전망된다.

투자의견 'BUY' 및 목표주가 50,000원 유지

현대제철에 대해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50,000원을 유지한다. 최근 열연과 철근 중심으로 국내 철강 유통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고 하반기로 갈수록 공공 중심으로 부동산 착공 확대로 봉형강 수요 개선이 기대된다. 현재 주가는 PBR 0.3배 수준으로 밸류에이션 부담도 제한적이라 판단된다.

1Q26 스프레드 대폭 축소로 별도 영업이익 적자, 자회사들은 수익성 개선

1Q26 영업이익 157억원(YoY 흑.전, QoQ -63.7%)으로 시장 컨센서스 560억원 하회

2026년 1분기 현대제철의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7조원(YoY +3.2%, QoQ +4.6%)과 157억원(YoY 흑.전, QoQ -63.7%)을 기록하면서 영업이익은 시장컨센서스인 560억원을 하회했다.

1) 판재류 중심의 판매 증가로 1분기 전체 판매량은 426만톤(YoY +3.3%, QoQ +5.8%)을 기록하며 고정비가 축소되었으나 중동 전쟁 영향으로 물류비가 대략 300억원 증가했다. 2) 고로는 원재료 투입단가가 1.0만원/톤 상승했지만 자동차용 강판 가격 인하에 따른 제품 Mix 악화로 ASP가 4.0만원/톤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크게 축소되었다. 3) 전기로는 ASP가 0.5만원/톤 상승에 그친 반면, 원재료 투입단가가 2.5만원/톤 상승하면서 마찬가지로 스프레드가 축소되면서 별도로 72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4) 한편, 주요 자회사인 현대스틸파이프의 수익성이 자체 개선됨과 동시에 관세 한급에 따른 추가 이익이 발생했고 해외스틸서비스센터의 미실현이익이 대규모로 반영되면서 연결 영업이익 적자를 방지했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효성티앤씨 (298020)

컨센 상회. 2Q26도 증익 유효

BUY (유지)

목표주가(12M)	590,000원
현재주가(4.24)	530,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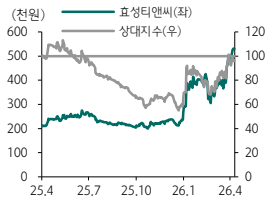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531,000/200,000
시가총액(십억원)	2,293.7
시가총액비중(%)	0.04
발행주식수(천주)	4,327.7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43.1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7.7
외국인지분율(%)	16.58
주요주주 지분율(%)	
효성 외 12 인	42.77
국민연금공단	10.01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8,189.8	8,459.7
영업이익(십억원)	396.4	469.0
순이익(십억원)	209.7	281.0
EPS(원)	37,914	50,521
BPS(원)	388,791	430,326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7,776.1	7,694.8	8,788.5	9,624.1
영업이익	270.7	251.5	424.5	501.0
세전이익	213.2	110.8	309.1	394.0
순이익	134.5	10.8	199.7	254.5
EPS	31,089	2,499	46,133	58,810
증감율	44.36	(91.96)	1,746.06	27.48
PER	7.69	89.04	11.49	9.01
PBR	0.71	0.61	1.33	1.18
EV/EBITDA	4.83	6.27	6.30	5.36
ROE	9.84	0.72	12.15	13.93
BPS	337,811	363,528	399,645	448,439
DPS	10,000	10,100	10,100	10,100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1Q26 영업이익 컨센 7% 상회

1Q26 영업이익은 862억원(QoQ +93%, YoY +11%)으로 컨센(807억원)을 7% 상회했다. 지배순이익도 433억원으로 컨센(446억원)에 부합했다. 영업이익이 컨센을 소폭 상회한 것은 스판덱스/PTMG의 실적 개선과 무역/기타의 회복 덕분이다. 스판덱스/PTMG 영업이익은 759억원(QoQ +64%, OPM +12.7%)으로 개선되었다. 수급 밸런스 회복에 따른 재고 감소로 고객사의 재고 보충 수요가 발생하면서 판매량과 판가가 동시에 QoQ low-single 늘어난 덕분이다. 참고로, 중국은 춘절 영향으로 오히려 판매량이 QoQ low-single 감소했다. 나일론/폴리는 원료가 급등에 따른 마진 축소로 적자폭이 확대된 것으로 추정한다. 무역/기타 영업이익은 126억원(QoQ 흑전)으로 개선되었다. 철강 부문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F2N2가스 등 고부가 가스 판매가 확대로 네오켐의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추정된다.

2Q26 영업이익 QoQ +29% 개선 전망

2Q26 영업이익은 1,114억원(QoQ +29%, YoY +52%)으로 전분기 대비 개선을 전망한다. 중국 중심의 스판덱스 업황 개선이 지속되기 때문이다. 스판덱스/PTMG 영업이익은 1,015억원(QoQ +34%, OPM +14.7%)을 추정한다. 춘절 효과 제거로 중국을 중심으로 전사 판매량이 QoQ mid-single 늘어나고, 판가는 QoQ +10% 이상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중국 40D 스판덱스 가격은 QoQ +14% 가량 상승한 상황이다. 무역/기타 영업이익은 129억원으로 전분기와 유사한 실적을 예상한다.

스판덱스 업사이클 진입

BUY, TP 59만원을 유지한다. 중국 스판덱스 재고일수는 2025년 초 50일 초에서 현재 23일로 대폭 축소되었다. 증설이 제한된 상황에서 중국 일부 업체의 파산에 따른 생산량 조절, 전방의 견조한 전방 수요 등 영향이다. 중국 스판덱스 가동률은 2025년 초 75%에서 현재 86%로 대폭 상승한 상황이다. 2026~27년 중국의 실질 증설량이 제한적인 국면에 진입하는 반면, 수요는 연평균 9~10% 성장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중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스판덱스의 수급밸런스는 타이트해질 것으로 판단한다. 당분간 유가는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효성티앤씨는 원료가 석탄 기반의 BDO라 소싱에 이슈가 없고, 오히려 폴리에스터 강세에 따른 스판덱스의 대체 수요 효과가 발생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다. 중장기 수급 밸런스 회복 관점에서, 단기 전쟁 관련 반사 수혜 측면 모두 긍정적인 환경이라 판단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HD현대마린솔루션 (443060)

데이터센터까지 확대되는 사업 영역

BUY (유지)

목표주가(12M)	330,000원(상향)
현재주가(4.24)	253,5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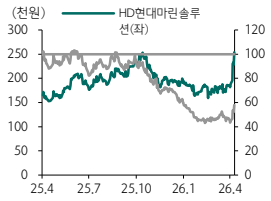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253,500/152,700
시가총액(십억원)	11,365.3
시가총액비중(%)	0.21
발행주식수(천주)	44,833.5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209.2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40.3
외국인지분율(%)	29.74
주요주주 지분율(%)	
에이치디현대 외 4 인	55.33
GIC Private Limited	7.04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2,358.0	2,605.8
영업이익(십억원)	440.6	545.8
순이익(십억원)	347.4	428.4
EPS(원)	7,748	9,556
BPS(원)	21,559	24,821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1,745.5	1,982.7	2,485.2	2,545.9
영업이익	271.7	350.1	433.9	524.7
세전이익	296.9	354.8	482.7	568.4
순이익	227.9	269.6	374.1	432.0
EPS	5,302	6,013	8,344	9,635
증감율	40.34	13.41	38.77	15.47
PER	30.44	32.18	27.33	23.66
PBR	9.35	10.52	10.27	8.86
EV/EBITDA	23.68	22.40	21.25	17.34
ROE	44.98	33.73	41.12	40.22
BPS	17,255	18,396	22,190	25,725
DPS	3,150	3,950	5,800	6,700

Analyst 유재선 jaeseon.yoo@hanafn.com
RA 성무규 mukyu.sung@hanafn.com

목표주가 330,000원으로 상향, 투자의견 매수 유지

HD현대마린솔루션 목표주가를 330,000원으로 기존대비 15.8% 상향하며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2028년 예상 EPS에 목표 PER 30배를 적용했다.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에 부합했다. 비핵심사업 매출 증가로 전사 마진은 둔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Core 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상승했다. AM사업의 데이터센터향 시장 진출이 현실화되었고 장기적으로 전사 마진 추가 상승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싱가포르 물류허브 운영으로 MRO 사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2026년 추정치 기준 PER 27.3배, PBR 10.3배다.

1Q26 영업이익 934억원(QoQ +3.2%)으로 컨센서스 부합

1분기 매출액은 5,746억원으로 전분기대비 11.3% 증가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벙커링 매출이 크게 증가했다. AM솔루션은 5개 분기 연속으로 최대 매출을 기록 중이며 대형 엔진 및 HiMSEN 엔진 성장 기조를 유지 중이다. 약 100억원 규모 대형 발전 공사 매출은 부품 인도 시점 조정으로 2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LTSA 재계약 목표 54척 중 16척을 1분기에 완료했고 신규 계약도 다수 확보했다. 비엔진은 수주가 증가했고 시차 감안 시 2분기부터 성장세 전환이 예상된다. 육상발전에서 에콰도르 전력청향 0.6억달러 정비계약을 수주했고 연내 매 분기 순차적으로 인식될 예정이다. 북미 데이터센터향 실적은 2029년부터 반영될 전망이며 엔진 LTSA에 더해 연관 AM 사업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솔루션은 대규모 공사 부재로 전분기대비 다소 부진했지만 2분기부터 회복 흐름이 예상되고 하반기에는 대규모 공사 매출이 집중될 전망이다. 디지털솔루션은 조업일수 영향으로 전분기대비 감소했지만 전년대비 성장세를 지속했다. 특수선 수주잔고가 증가했고 2분기에 샤프트제너레이터 중심 매출 회복이 기대된다. 영업이익은 934억원으로 전분기대비 3.2% 증가했다. 전사 이익률은 16.3%로 전분기대비 1.2%p 낮아졌지만 저마진 벙커링 매출액 증가로 인한 희석 효과다. 핵심 사업 마진은 30.0%를 기록하며 전분기대비 1.6%p 개선되었다. AM솔루션은 HiMSEN 위주 벌크성 매출이 반영된 가운데 엔진의 매출 기여도가 상승하면서 이익률이 개선되었다. 친환경솔루션은 대규모 공사 부재 영향, 디지털솔루션은 일부 제품군의 비용 반영 등으로 전분기대비 이익이 감소했다.

안정적 실적과 높은 성장성 기반 주주환원 정책 유지 중

3월 25일 기업가치제고계획을 발표했다. 배당성향은 기존 50~70%를 유지하고 최소 DPS는 3,600원으로 기존대비 600원 상향되었다. 2025년 연간 DPS가 3,950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충족 가능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 간주된다. 2028년 핵심 사업 매출 성장 CAGR 20%를 유지한 가운데 전사 마진 목표는 기존 16%에서 20%로 상향했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Update

한국항공우주 (047810)

UJTS 사업 철수: 아쉬움은 단기 변수. 핵심은 KF-21 수출

BUY (유지)

목표주가(12M)	230,000원(유지)
현재주가(4.24)	171,4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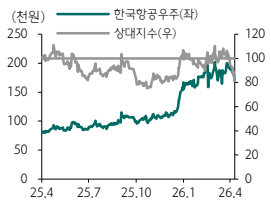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202,000/81,700
시가총액(십억원)	16,707.2
시가총액비중(%)	0.31
발행주식수(천주)	97,475.1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882.8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158.1
외국인지분율(%)	27.93
주요주주 지분율(%)	
한국수출입은행	26.41
국민연금공단	8.12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5,658.3	6,737.4
영업이익(십억원)	490.2	671.2
순이익(십억원)	369.5	524.8
EPS(원)	3,748	5,323
BPS(원)	22,027	26,579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3,633.7	3,696.4	5,770.0	6,916.1
영업이익	240.7	269.2	496.5	665.5
세전이익	197.1	202.3	474.6	667.6
순이익	172.1	185.9	413.9	581.6
EPS	1,765	1,907	4,246	5,967
증감율	(23.19)	8.05	122.65	40.53
PER	31.10	59.99	40.37	28.72
PBR	3.14	6.09	7.61	6.28
EV/EBITDA	18.27	35.07	31.79	24.99
ROE	10.42	10.51	20.56	23.96
BPS	17,500	18,776	22,522	27,289
DPS	500	500	1,200	1,500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UJTS 사업 철수 결정으로 주가 하락

현지시각 4월 23일 Lockheed Martin이 미국 해군 차세대 고등훈련기 도입 사업 입찰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Lockheed Martin은 T-50 플랫폼이 강력한 성능과 잠재력을 지닌 훈련기라는 점에는 여전히 확인을 보였으나 미국산 콘텐츠 요건과 기타 사유를 고려할 때 자사의 제안이 해당 사업에 최적의 솔루션이 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Lockheed Martin과 함께 수주 경쟁에 참여할 예정이었던 한국항공우주도 사실상 사업에서 철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훈련기 시장이 일반적으로 전투기 시장 규모와 연동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세계 최대 전투기 시장인 미국에서 사업을 철수한 점은 상당히 아쉬운 요인이다. 이에 따라 4월 24일 한국항공우주 주가는 6.1% 하락했다.

영업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UJTS 사업 철수는 수주 파이프라인 규모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투자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만 UJTS 사업 철수가 영업실적 전망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한다. 기존과 같이 2026년, 2027년, 2028년 연간 영업이익 추정치는 각각 4,965억원(YoY +84.4%), 6,655억원(+34.1%), 8,253억원(+24.0%)을 유지한다. 2028년까지의 실적 업사이클은 여전히 유효하다. KF-21 내수 양산 확대를 통해 절대적인 이익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매년 소형무장헬기(LAH) 양산사업에서 0.5~0.7조원 규모의 매출 기여가 예상된다. 또한 2026년 하반기부터는 기존 말레이시아 FA-50 계열 개발매출이 양산매출로 전환되고 2027년부터는 폴란드 FA-50 계열 개발매출도 양산매출로 전환될 전망이다. 회전익 부문 역시 수주 가시성이 높다. 현재 개발매출로 인식되는 상륙공격헬기와 소해헬기는 연내 개발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2027년 이후 양산 수주계약이 기대된다. 소형무장헬기 역시 추가 양산계약이 남아 있다. 종합하면 내수 수주만으로도 고정익과 회전익 부문의 실적 가시성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는 판단이다. 2028년까지의 연간 영업이익 컨센서스도 당사 추정치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를 고려하면 이익 추정치 하향 조정 우려는 제한적이다.

KF-21의 수출 성과가 추가 실적 업사이드와 밸류에이션 상방을 결정할 전망

2028년 연간 영업이익이 약 8,000억원 규모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밸류에이션 기준 시점을 2028년으로 설정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다. 현재 주가에 2028년 순이익을 적용한 PER은 약 24배이다. 과거 부여받던 밸류에이션을 고려하면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향후 추가 실적 업사이드와 밸류에이션 상방은 KF-21의 수출 성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KF-21 한 대 양산에 약 1년 6개월~2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부터 2027년 상반기까지의 KF-21 수출 성과가 2028년 이후 실적을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KF-21 종합적인 경쟁력을 고려하면 수출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한다.

2026년 4월 27일 | 기업분석_Earnings Review

현대로템 (064350)

1Q26 리뷰: 기대치 부합. 어쩌면 종전 수혜주

BUY (유지)

목표주가(12M)	283,000원(유지)
현재주가(4.24)	233,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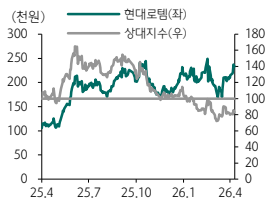
Key Data

KOSPI 지수 (pt)	6,475.63
52주 최고/최저(원)	249,000/106,600
시가총액(십억원)	25,430.2
시가총액비중(%)	0.48
발행주식수(천주)	109,142.3
60일 평균 거래량(천주)	981.4
60일 평균 거래대금(십억원)	210.7
외국인지분율(%)	35.10
주요주주 지분율(%)	
현대자동차 외 2 인	33.77
국민연금공단	8.08

Consensus Data

	2026	2027
매출액(십억원)	6,881.3	8,326.5
영업이익(십억원)	1,182.0	1,657.1
순이익(십억원)	936.1	1,314.6
EPS(원)	8,562	12,018
BPS(원)	36,131	47,905

Stock Price



Financial Data (십억원, %, 배, 원)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액	4,376.6	5,839.0	6,815.7	7,350.3
영업이익	456.6	1,005.6	1,180.4	1,291.4
세전이익	509.6	1,004.3	1,183.3	1,297.5
순이익	406.9	769.9	886.2	988.3
EPS	3,728	7,055	8,119	9,055
증감율	152.75	89.24	15.08	11.53
PER	13.33	26.63	28.70	25.73
PBR	2.65	6.66	6.52	5.27
EV/EBITDA	9.87	18.14	17.27	15.31
ROE	21.85	30.05	25.40	22.66
BPS	18,737	28,211	35,731	44,185
DPS	200	600	600	780

Analyst 채운샘 unsam1@hanafn.com

목표주가 283,000원, 투자의견 매수 유지

현대로템 목표주가 283,000원과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한다. 1분기 실적은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수출에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수출 매출 비중 확대 효과가 유효했다. 한편 최근 주가는 국내 방산기업 대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을 보이며 4월 한 달 간 37.5%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국 증시가 큰 폭으로 반등한 가운데 1분기 실적 기대감, 상대적으로 낮은 PER 멀티플 부각, 4월 11일 이라크 대통령 선출에 따른 전차 수출 협상 재개 기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한다. 수주 파이프라인은 기존 추정과 동일한 총 35조원 규모로 예상하며 주요 파이프라인 국가는 폴란드, 이라크, 루마니아, 페루 등이다. 2026년 1분기 기준 디펜스솔루션 수주잔고는 10.1조원으로 약 3.2년치 매출에 해당하는 일감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주가 기준 2026년 PER은 28.7배이다.

1Q26 영업이익 2,242억원(YoY +10.5%)으로 컨센서스 부합

1분기 매출액은 1.5조원으로 전년대비 23.9% 증가했다. 디펜스솔루션과 레일솔루션 부문의 성장이 실적을 견인했다. 부문별로 보면 디펜스솔루션과 레일솔루션 매출은 각각 전년대비 22.2%, 35.0% 증가한 반면 에코플랜트 부문 매출은 4.7% 감소했다. 디펜스솔루션 부문의 수출과 내수 매출은 각각 0.6조원, 0.2조원으로 전년대비 모두 개선됐다. 수출에 우호적인 환율 환경이 이어지는 가운데 폴란드 2차 실행계약, 폴란드 1차 실행계약 후속지원 잔여분, 튀르키예 알타이 전차 부품 공급 사업 등이 반영으로 수출 매출 비중은 약 75%를 기록했고 전년대비 확대됐다. 레일솔루션 부문의 수출과 내수 매출은 각각 0.4조원, 0.2조원을 기록했다. 내수는 전년보다 소폭 개선된 반면 수출은 이집트, 호주, 캐나다 사업이 반영되며 큰 폭으로 증가했다. 에코플랜트 부문은 북미 현대모비스 모듈공장 라인 공급 사업과 현대제철 당진 CDQ 3기 사업이 생산 종료 단계에 진입함에 따라 매출이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2,242억원, 영업이익률은 15.4%로 각각 전년대비 10.5% 증가, 1.9%p 감소했다. 매출액 증가율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이 낮았던 이유는 1) 아직 폴란드 2차 실행계약의 수익성이 1차 실행계약의 후반부 대비 낮은 점, 2) 레일솔루션에서 내수 대비 수익성이 좋은 수출 매출 비중이 확대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추가 수주 확보를 위한 비용 집행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연간 실적 가이던스 변동없음. 연내 기대되는 수주 파이프라인은 페루, 이라크 제시

2026년 연간 실적 가이던스는 전년대비 유사하거나 다소 개선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이 유지됐다. 수주 파이프라인 가운데 가장 가시성이 높은 사업은 페루로 제시됐다. 페루는 내부 정치 이슈가 지속되고 있으나 이와 무관하게 연내 성과를 목표로 협의를 이어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라크는 전쟁 여파로 영업활동이 제한적이지만 상황 호전 시 수주 협상에 빠른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2027년 연간 실적 측면에서는 이라크 수주 확보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6년 04월 27일 | 산업분석_Issue Comment

자동차

8조원 규모의 HMG 퓨처 콤플렉스 투자

Overweight

Top Picks

*CP 2026년 04월 24일

현대차(005380)
BUY | TP 660,000원 | CP 513,000원

기아(000270)
BUY | TP 210,000원 | CP 153,400원

현대모비스(012330)
BUY | TP 570,000원 | CP 422,500원

Analyst 송선재 sunjae.song@hanafn.com

2030년까지 총 8조원 규모. 현재 5개사가 7.3조원 출자 확인

① 복합 연구단지: 현대차그룹이 'HMG퓨처콤플렉스' 신설을 위한 출자를 결정했다. HMG퓨처콤플렉스는 복합 연구 및 업무 거점 확보를 위해 2026년 5월 중 설립될 예정이다.

② 참여 기업과 출자 금액: 현재까지 공시한 5개 기업들(현대차/기아/현대모비스/현대제철/현대로템)의 합산 투자금액은 7.33조원이고, 취득 지분율은 91.6%이다. 남은 8.4%에 대해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통해 총 투자 규모는 8.0조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회사별 출자 규모는 현대차 2.89조원(지분 36.1%), 기아 2.36조원(29.5%), 현대모비스 1.10조원(13.7%), 현대제철 0.52조원(6.5%), 현대로템 0.46조원(5.8%)이다. 잔여 금액 0.67조원(8.4%)의 출자 주체는 추후 결정된다(추후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③ 출자 일정: 취득 금액은 2026년 5월/6월을 시작으로 2027년 4월, 2028년 4월, 2029년 4월, 최종 2030년 12월 등 약 5년에 걸쳐 분할 납입된다.

④ 연구단지 위치: 해당 복합 연구단지가 조성되는 지역은 서울 송파구 복정역 인근의 복정역세권 개발 지역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를 공급하는 LH 자료에 따르면, 약 22만㎡ 규모의 복합용지 및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필지로 업무/상업 등 복합 시설로 개발될 경우 연면적 100만㎡(코엑스의 약 2.2배)까지 가능하다.

그룹 내 AI 및 SW 연구인력들 중심으로 입주할 전망

현대차그룹이 대규모 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배경은 전동화/자율주행/로봇 등 미래 기술 개발을 위한 AI/SW 거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양재 본사는 물론 남양/의왕/마북/강남 연구소 등의 시설이 노후화되고 과밀화되는 가운데, 계열사별로 분산된 연구 조직을 모아 업무 효율성과 시너지를 높일 목적으로 보인다. 또한, 향후 건설될 GBC 본사 및 핵심 업무지구와 인접해 연구인력 확보에도 유리할 것이다. HMG퓨처콤플렉스가 완공되면, 그룹 내 모빌리티 핵심 연구조직인 AVP 본부 및 자율주행 시스템 개발사인 포티투닷, 기존 남양/의왕/마북 등의 AI/SW 연구인력 등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기로는 미래 대응력에 대한 기대, 단기로는 자본 효율성에 대한 불확실성

출자 확정 5개 회사의 이익 창출 능력을 감안할 때, 5년간 7.3조원(연간 약 1.5조원)을 분담하는 일정은 재무적 부담이 제한적일 것이다(2025년 합산 영업이익 26조원의 5.6% 수준). 연구 인프라 확충을 통해 미래 모빌리티 및 AI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다만, 지난 2월 새만금 투자(9조원)에 이어 대규모 연구단지 투자(8조원)가 추가되면서 2030년까지 자본적 지출(Capex)이 확대되는 기조가 불가피하다는 점과 연구단지 완공 및 성과 가시화까지 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투자 대비 수익(ROI)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단기 자본 효율성 저하와 주주환원 증대 여력에 대한 의문이 반영될 것이고, 중장기로는 미래 기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는 기대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

은행별 차별화된 실적. 그러나 호실적에도 반응없는 주가

은행 Weekly | 2026.4.27

Analyst 최정욱, CFA cuchoi@hanafn.com

RA 정소영 soyoungjung@hanafn.com

전주 은행주 큰폭 초과하락. KOSPI 역사적 고점 경신 가운데 호실적 발표에도 외국인 매도세 지속되며 별다른 주가 반응 없음

- 전주 은행주는 1.4% 하락해 KOSPI 상승률 약 4.6% 대비 큰폭 초과하락했다. 4주째 초과하락세 지속 중이다. 현실과는 달리 미국과 이란 협상 재개 기대감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위주의 상승으로 KOSPI가 역사점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주는 대형은행지주사들의 양호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별다른 주가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 지난주 미국 국채금리는 상승했는데 케빈 워시 청문회 이후 상승 폭이 확대되었다. 연말까지 기준금리 동결 확률이 67%대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4.31%로 한주간 6bp 상승했고, 2년물 국채금리는 3.79%로 8bp 상승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가능성으로 다시 상승해 1,476.8원으로 마감했다. 한주간 16.8원 상승했다. 지난주 외국인은 KOSPI와 은행주를 각각 2.0조원과 1,930억원 순매도했고, 국내 기관은 KOSPI와 은행주를 1.2조원과 300억원 순매수했다. 그러나 은행 자사주 매입분 제외시 국내 기관도 사실상 은행주에 대해 순매도인 상황이다

1분기 특징은 은행간 실적 차별화. 다만 주가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 없었음. 업종간 수급 상황과 매크로 우려 등에 주로 좌우

- 1분기 은행 실적의 특징은 은행별로 실적이 차별화되었다는 점이다.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모든 은행들이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했던 반면 1분기에는 그렇지 않았다. 증권자회사의 비중이 높은 대형은행지주사들의 경우는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던 반면 그렇지 않은 우리금융과 JB금융은 일회성 비용 요인과 유가증권관련손실로 인해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다
- 다만 실적이 주가 방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데 이는 개별은행들의 실적보다는 KOSPI내 업종선호도와 중동사태 향방에 따른 매크로 우려 등에 좌우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동사태 발생 초기에는 국채금리 상승 등으로 인해 방어적 매력이 부각되던 은행주가 국제유가 상승이 장기화되면서 금리보다는 credit risk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수급 측면에서는 KOSPI내 주도업종 위주의 주가 상승으로 인한 쏠림으로 상대적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주도업종 매수를 위해 유동성이 양호한 은행주 매도)
- 지난주에는 은행들의 자사주 매입이 거의 없었던 점도 주가 약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실적 발표 완료와 자사주 추가 매입 공시가 이루어진만큼 금주부터 다시 대규모 자사주 매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1분기 CET 1 비율 하락도 은행주 약세에 기여. 다만 신한과 하나금융은 2분기 상승 요인 큰 편. 한편 NIM은 예상보다 더 양호

- 지난주의 은행주 약세에는 1분기 CET 1 비율이 상당폭 하락한 점도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KB금융 QoQ -19bp, 신한지주 -16bp, 하나금융 -29bp 하락) 해외장기지분투자/해외점포이익잉여금에 대한 구조적 외환포지션 인정 효과가 최종 수치에 수정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고, 손실사건 운영리스크 적용기간 축소에 따른 상승 효과도 2분기에 반영되면서 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신한지주와 하나금융의 경우는 상기 요인으로만 약 25~30bp 개선이 가능하기 때문에 2분기 CET 1 비율이 13.4%를 넘어설 공산이 크다
- 한편 1분기 NIM이 우리 예상보다 더 상승했고, 3월 월중 NIM은 전월대비 대폭 상승했다. 적어도 2분기까지는 상당폭의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하반기에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은행 연간 NIM은 평균 약 6~7bp 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한다

대형은행들은 2분기에도 호실적 지속이 예상되고, 4월 중 은행주 초과하락 폭이 -17%에 달해 마냥 계속 소외되지는 않을 전망

- 대형은행지주사들의 양호한 실적이 주가에 아직 반영되지 않고 있지만 예상을 상회하는 NIM 상승세 및 자본시장 관련 수수료이익 확대 지속 등으로 대형은행들의 경우 2분기에도 호실적이 예상되고, 4월의 은행주 underperform 폭이 KOSPI 대비 -17%p에 달한다는 점에서 마냥 계속 소외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 이란간 협상 진전 소식이 나올 경우 의외로 타섹터대비 반등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펀더멘털이 계속 양호할 수 있는 대형은행지주사 위주로 관심 확대 권고한다

금주 은행 주간 선호 종목으로 KB금융(매수/TP 200,000원)과 하나금융(매수/TP 157,000원)을 제시

중국의 철강 생산 및 수출 유의미하게 감소 중

철강금속 Weekly | 2026.04.27

Analyst 박성봉 sbpark@hanafn.com

RA 김승규 sgkim@hanafn.com

주간 동향

철강금속 주요 지표 동향

- 국내 철강가격(원/톤)

  열연 유통가: 95만원(WoW, 0.0%), 열연 수입유통가: 89만원(WoW, 0.0%), 철근 유통가: 85만원(WoW, +1.2%), 후판 유통가: 98만원(WoW, 0.0%)

- 해외 철강가격(달러/숏톤, 위안/톤) (1 Short Ton=907kg)*

  미국 열연 유통가: 1,045달러(WoW, +0.5%), 중국 열연 유통가: 3,370위안(WoW, +1.5%), 중국 냉연 유통가: 3,803위안(WoW, +0.7%), 중국 철근 유통가: 3,225위안(WoW, +0.3%)

- 원재료 가격(달러/톤, 원/톤, 달러/톤)

  중국 철광석 수입가: 106.9달러(WoW, +0.9%), 한국 스크랩가: 42.2만원(WoW, 0.0%), 호주 원료탄(FOB): 231.3달러(WoW, -1.9%)

- 주요 비철금속(LME) 및 귀금속 가격(달러/톤, 온스)

  전기동: 13,230달러(WoW, +0.6%), 아연: 3,482달러(WoW, +1.1%), 연: 1,952달러(WoW, +0.4%), 니켈: 18,827달러(WoW, +5.1%), 금: 4,722달러(WoW, -2.8%), 은: 76.4달러(WoW, -6.6%)

- 국내 철강 유통가격: 주요 제품 6주 연속 상승 후 숨고르기. 철근 유통가격은 금주에도 상승세 지속
- 중국 철강 유통가격: 원재료 가격 상승과 바오산을 비롯한 제강사들의 가격 인상 정책으로 2주 연속 상승
- 산업용 금속가격: 미달러 강세 불구, 미-이란 휴전 연장으로 3주 연속 상승, 특히 니켈가격 가장 큰 폭 상승

철강금속기업 주가 동향

- 국내 철강금속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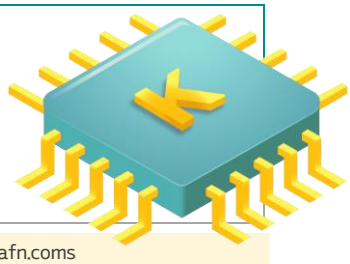
  POSCO홀딩스: 41.5만원(+7.8%), 현대제철: 4.25만원(+8.7%), 세아베스틸지주: 7.11만원(-5.3%), 고려아연: 164.2만원(-2.2%)

- 해외 철강기업(자국 통화)

  BAO STEEL: 6.35위안(+0.8%), A. MITTAL: 50.48유로(-5.5%), NSSMC: 573.1엔(-3.7%), TATA STEEL: 210.07루피(-1.0%), NUCOR: 214.29달러(+9.4%)

- 총평: 글로벌 철강사들 주가 국가별로 차별화. 자국내 철강 유통가격 상승으로 한국과 미국 철강사들 주가 상승세 두드러져….

2분기에도 하락 구간은 비중확대 기회



반도체 및 소부장 Weekly | 2026.4.27

Analyst 김록호 roko.kim@hanafn.com
RA 김영규 kyg1019@hanafn.coms

데이터 포인트 및 주간 리뷰: 신고가 경신 이후에 차익 실현 진행

- 4월 20일 기준 영업일 평균 메모리 반도체 수출 금액은 전년동기대비 223% 증가한 8.4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DRAM은 전년 동기 대비 345% 증가한 4.3억 달러, NAND는 전년 동기 대비 225% 증가한 6,347만 달러를 기록했다. MCP는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2.7억 달러를 기록했다. 메모리 가격 호조 및 기저 효과에 힘입어 DRAM을 포함해 메모리 전체가 세 자릿수 이상의 증가폭을 시현중이다.
- 코스피 지수는 4.6% 상승하면서 3주 연속 양호한 흐름을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1.6%, SK하이닉스는 8.3% 상승했다. 미국-이란 간의 긴장 완화 이후에 코스피 및 메모리 업체들의 주가가 지속 상승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호실적 기대감으로 양호한 주가를 보이며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실적 발표 이후에 상승 피로감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지난 3주 동안 SK하이닉스대비 언더퍼폼했는데, 성과급 관련 파업 이슈로 인해 실적 등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 코스닥 지수도 2.9% 상승하면서 코스피와 함께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하나증권 커버리지 종목들은 대부분 양호한 주가를 보였는데, 피에스케이홀딩스와 씨엠티엑스는 하락 마감했다. 두 업체는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상존하는 상황이다. 씨엠티엑스는 지난 주에 20% 이상 큰 폭의 주가 상승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다.

전망 및 전략: 비중확대 지속 추천. 다수의 반도체 업체들 실적 발표

- 메모리 업종 및 소부장에 대한 비중확대를 지속 추천한다. 메모리 업체들은 신고가를 경신하며, 차익 실현이 진행되었다. 하나증권은 2분기 중에도 메모리 업체들의 2분기 및 연간 실적 상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모바일 DRAM 및 eSSD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가격 형성 정황이 포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누차 언급했듯이 금번 싸이클에서는 실적 상향 조정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주가도 동행할 것으로 예상한다. 2분기 및 3분기 메모리 가격 또는 이번 싸이클의 변수는 AI 서버/데이터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LPDDR이라 판단된다. 아울러 메모리 업체들의 투자 및 2027년 신규 Fab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하기 때문에 소부장 업체들에 대한 투자도 지속 추천한다.
- 27일에 Advantest, 28일에 Amkor, 29일에 NXP, 30일에 Qualcomm 및 KLA 실적이 발표될 예정이다. 후공정 부문 주요 업체들의 실적 발표를 통해 어드밴스드 패키지 관련 양호한 업황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연간 매출액 및 Capex 상향 조정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NXP 실적에서는 자동차 및 전력 반도체 업황, Qualcomm 통해서는 스마트폰 출하량 하향 등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 1. 반도체 주요 종목 Valuation / Performance / 수급 동향

기업/지수	시가총액 (십억원)	종가/지수	주가 수익률			주간 순매수 (십억원)			PER (배)		PBR (배)	
			1W	1M	YTD	기관	외국인	개인	26F	27F	26F	27F
코스피	5,147,296	6,476	4.6	16.6	53.7	1,316.4	-1,785.2	596.4	7.9	6.4	1.7	1.4
코스닥	666,907	1203.84	2.9	7.4	30.1	-611.5	483.7	373.2	32.8	23.5	3.7	3.3
삼성전자	1,283,258	219,500	1.6	15.7	83.1	293.3	-945.0	336.7	6.0	4.9	2.2	1.6
SK하이닉스	870,922	1,222,000	8.3	23.9	87.7	59.1	-562.5	485.5	4.4	3.4	2.7	1.5
주성엔지니어링	5,759	123,900	76.0	60.1	347.3	55.2	155.5	-212.6	73.0	38.8	8.6	7.1
피에스케이	2,694	93,000	9.8	16.5	152.0	-8.7	12.6	-5.0	24.1	19.2	4.2	3.5
피에스케이홀딩스	2,447	113,500	-4.5	11.8	145.1	-28.5	8.5	19.8	23.4	18.9	4.2	3.6
파크시스템스	1,991	284,500	8.4	9.0	36.1	-10.9	24.0	-13.3	36.9	29.5	7.1	5.8
테스	1,737	89,700	1.9	42.4	101.4	-4.9	17.5	-12.2	21.3	17.0	3.5	2.9
씨엠티엑스	1,423	148,800	-8.4	4.4	49.0	-23.0	2.9	20.5	20.8	16.4	8.2	5.6
브이엠	1,362	55,800	1.3	18.9	84.8	-4.0	7.0	-2.5	19.8	15.5	5.7	4.1
원익머트리얼즈	692	54,900	6.4	31.2	77.7	2.5	-2.2	-0.3	11.8	8.5	1.2	1.1

자료: 하나증권

중국까지 덮친 원유 조달 이슈

에너지/화학 Weekly Monitor | 2026.04.27

Analyst 윤재성 js.yoon@hanafn.com

RA 김형준 do200508@hanafn.com

Weekly Issue: 중국까지 덮친 원유 조달 이슈

- **총평**

- WTI 94.4$/bbl(+13%), Dubai 107.2$/bbl(+5%). 정제마진 37.9$/bb(WoW -9$) 조정. 미국-이란 휴전 협상 사실 상 멈춰
- 휴전 만기 4/27일로 연장. 하지만, 이란도 파키스탄을 떠났고, 미국도 특사 파견 취소. 호르무즈 불확실성 지속. 추천 종목 없음

- **중국마저 덮친 원유 조달 이슈**

- **아시아 정유설비 가동률 대폭 감축:** 4월 아시아 원유 수입량 YoY -22% 감소한 2,040만b/d 추정. 2016년 이후 최저치. IEA는 3월 아시아 정제 처리량 2,940만b/d(MoM -8.4%), 4월 2,860만b/d(MoM -2.7%), 5월 2,850만b/d(MoM -0.3%) 전망. 참고로, 4/1~20일까지를 기반으로 추정한 4월 한국의 원유 수입량은 평소 대비 30% 가량 축소 전망. FGE NexantECA는 한국/일본의 정유설비 가동률이 4월 말~5월 초 평소 70~80% 수준에서 약 65%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 싱가폴은 평소 약 70%에서 50% 미만으로 하락할 가능성 제기. 참고로, 일본석유협회 자료에 따르면 일본 가동률은 4월 기준 68%
- **중국은 석유제품 우선 생산 정책에도 불구하고 가동률 하락:** 중국은 작년 전략비축유를 대폭 도입했고, 석유제품 우선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제 처리량 감소. IEA는 중국 3월 정제처리량을 1,400만b/d(MoM -8%) 추정. 중국 리서치 기관 Horizon Insight는 4/17일 정제 처리량 1,340만b/d로 전쟁 이전 대비 13% 감소 추정
- **미국의 중국 Teapot에 대한 제재도 강화:** 4/24일(금) 미국은 이란산 원유 도입을 이유로 중국 Teapot 정유사에 대한 제재 부과. 대표적으로 Hengli PC(대련)가 해당. 이미 중국 Teapot 정유사는 정부의 2025년 이상의 생산량 유지 명령(위반 시 원유 수입 쿼터 삭감), 휘발유/경유 내수 판가 인상폭 제한, 인도의 이란산 원유 구매 급증에 따른 이란산 원유의 프리미엄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이번 미국의 조치로 인해 추가적인 걸림돌이 생겨난 셈. 참고로, Hengli PC는 COTC 공법을 기반으로 정유제품은 물론 PX-PTA를 수직 계열화. 해당 조치로 중국 PTA 가동률 65%까지 급감
- **한국은 상대적으로 원유 소싱 원활한 듯:** 4/24일 강훈식 비서실장은 5월 한국 원유 도입량이 작년 월평균의 87%까지 확대되었다고 언급. 4월에는 과거 평균의 57%에 불과했으나, 대체 도입 노력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발표. 참고로, 미주/아프리카 등으로부터 물량을 추가 확보해 중동산 의존도를 기존 69%에서 56%로 13%p 낮추었다고 설명
- **아시아 업체의 경질원유 도입 확대의 이면:** 최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아시아 정유업체들의 미국산 WTI, 카자흐스탄 CPC Blend, 서아프리카산 저유황 원유 등이 수입되나, 이는 휘발유/납사 생산 비중이 높은 특징을 보여. 참고로, 아시아 4월 선적 기준 원유 믹스에서 경질/저유황 비중은 21%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2월 11%에서 대폭 상승. 이에 따라 디젤/항공유의 생산량이 감소. 중동산의 중간유분 비중은 60%이나, WTI는 40%에 불과하기 때문. 아시아 전체 정제설비에서 이와 같은 디젤/ 항공유 수급에 변화는 디젤/항공유의 공급 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
- **결론: 1) 아시아 전반 정제/석유화학 설비 가동률 감축 현실화 2) 특히, 그 동안 이란 원유 등을 조달했던 중국 Teapot도 미국의 제재 등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되며 석유제품 및 석유화학 제품 수급에 영향을 주기 시작 3) 한국이 상대적으로 원유 조달 측면에서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점은 다행 4) 다만, 이번 주에도 미국-이란 협상의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아시아를 중심으로 디젤/항공유는 물론, 석유화학 제품에도 쇼티지가 심화될 수 있음. 참고로, 지난 주 미국 휘발유 가격은 전쟁 이후 최대치 도달**

- **미국-이란 휴전 협상의 불확실성: 에너지 산업 Update(9)**

- 석유제품 시장: WTI 94.4$/bbl(+13%), Dubai 107.2$/bbl(+5%). 정제마진 37.9$/bb(WoW -9$). 유럽 디젤 선물 가격 WoW +21%. 4/22일 미국-이란 휴전 협상 미뤄지고, 이후 전쟁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된 영향
- 가스 시장: 아시아 JKM +13%, 유럽 TTF +12%. 미국 Henry Hub -6%
- 석유화학 시장: 납사 +8% vs. 부타디엔 -17%, 가성소다 -7%, BZ/HDPE/페놀/아세톤/MDI -4%, MEG/합성고무 -3%, 에틸렌 -2%. 납사 상승 불구 제품 전반 대폭 하락

과거와 다른 두 가지

2차전지 Weekly ⚡ 이배속(이번주 배터리 속이야기) | **Overweight** | 2026.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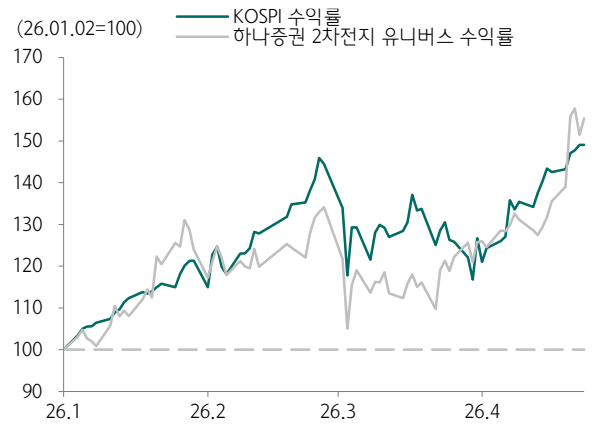
Analyst 김현수 hyunsoo@hanafn.com

RA 홍지원 jiwonhong@hanafn.com

데이터 포인트 해석 및 투자 전략 : 조정 시 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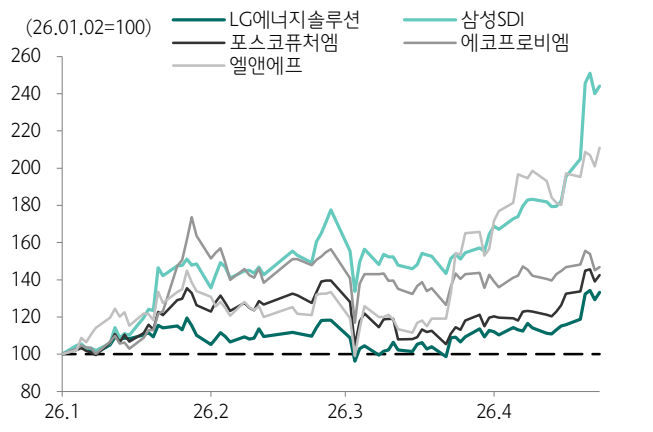
- 지난 8개월간 지속된 배터리 섹터 상승은 과거와 두가지 측면에서 다르다. 먼저, 실적과 Valuation factor의 방향성이 다르다. 2023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까지의 배터리 버블 붕괴 구간은 실적 추정치가 지속 하향 조정되는 동시에 배터리 섹터의 성장 담론이 친환경이라는 불안정한 논리에 기초해 있었다. 따라서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LGES 시총 기준 120조원에 근접하면 기계적인 매도가 필요했다.
- 반면 2025년 3분기부터 시작된 상승은 이전과 다르다. 먼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이 마무리됐다. EV는 최악을 이미 가정하고 있고, ESS는 가파른 성장 지속하고 있어 EPS 추정치 하향 조정 우려가 매우 제한적이다. 결정적으로 배터리 섹터의 성장 담론이 에너지 안보 확립과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라는 각자의 이익 추구 행위에 기초한다. 최근에는 EV 라인의 CAPA 규모가 LGES와 삼성SDI 모두 유럽에서 10% 이상 감소하며, 고정비 부담이 감소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셀 메이커들의 밸류에이션 기준시점인 2028년 기준으로 실적 추정치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지금은 트레이딩 접근이 아니라 Buy&Hold가 가능하다.
- 두 번째로 다른 부분은 주인공의 교체다. 2018 -2023 배터리 상승 싸이클 당시 주인공은 소재 기업들이었다. 메탈 가격에 따른 P 상승과 EV 출하 증가에 따른 Q 증가가 맞물리며 소재 기업들의 실적 성장세가 가팔랐고, 이로 인해 이들의 주가 상승폭도 대형주 대비 컸다. 반면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상승 싸이클 구간의 주인공은 셀 메이커다. Grid ESS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LFP 전환 대응이 용이한 동시에 미국 내 셀 생산 시 생산보조금(AMPC) 수취 효과가 맞물리며, 셀 메이커들의 EPS 증가 폭이 섹터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도 해당 논리가 유효하다는 점에서 셀 메이커 위주의 매수를 권고한다.
- (뒷 페이지 계속)

도표 1. KOSPI 대비 2차전지 섹터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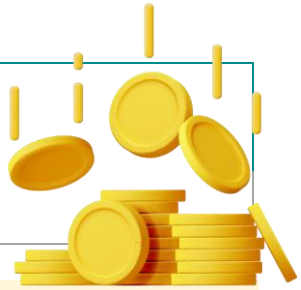
자료: 하나증권

도표 2. 주요 업체 주가 추이



자료: 하나증권

하방은 단단해지고 상단은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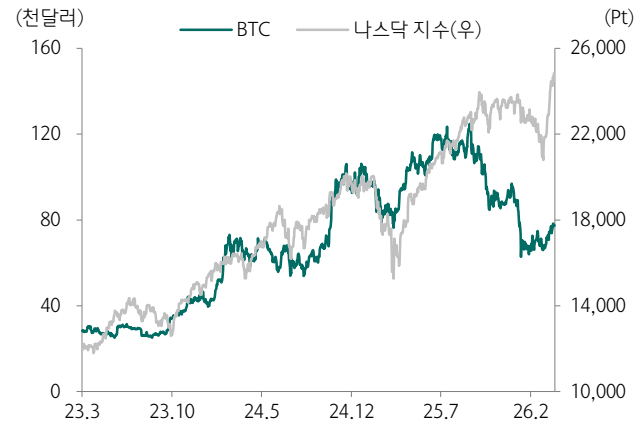
디지털자산 Weekly 온체인(On-Chain) | 2026.4.27

Analyst 이준호 junholee95@hanafn.com

디지털자산 및 관련 기업 총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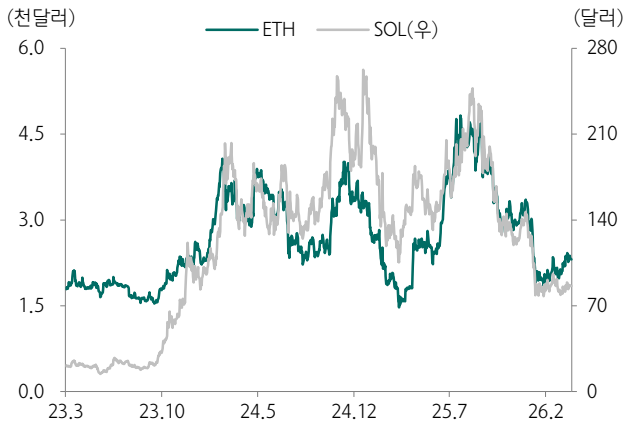
- 이번 주 디지털자산 시장은 지정학적 이슈, AI Agent 인프라, 디파이 리스크 복구에 의해 움직였다. 주요 코인의 수익률은 BTC +4.9%, ETH +2.0%, SOL +3.1%, TRX -1.6%, BNB +2.0%다. 비트코인은 주중 79K 달러를 돌파, 단기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4월 25일 이란 협상 일정 취소 보도 이후 소폭 하락하며 지정학적 변수가 여전히 단기 가격의 핵심 리스크임을 드러냈다. 가장 눈에 띄는 이벤트는 트럼프의 '오피셜 트럼프 VIP' 행사에서의 발언이었다. 트럼프는 클래리티 액트에 대한 공개 지지 의사를 밝혔으며 은행권을 비판, 디지털자산 친화적 메시지를 재차 강조했다.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며 트럼프 측 혹은 백악관에서 디지털자산 업계에 우호적인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다.
- 블랙록의 BTC ETF IBIT가 최근 13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 누적 BTC 81.2만개를 달성했다. 4월 8일 모건 스탠리의 ETF 출시와 함께 디지털자산 시장 반등이 맞물리며 미국 BTC ETF가 9거래일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블랙록이 이를 주도하는 모습이다. 스트래티지는 20일 BTC 34,164개를 추가 매입했다. 올해에만 약 14만개 이상을 매수, 현재 보유량은 81.5만개다. 100만개라는 목표치를 올해 충분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관 중심으로의 구조 재편으로 BTC 가격의 하방이 견고해지고 있다.
- 코인베이스는 4월 21일 AI 에이전트를 위한 마켓플레이스인 Agentic.Market을 공식 출시했다.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직접 서비스를 검색하고 결제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다른 사람의 에이전트에 서비스를 직접 판매할 수도 있다. 에이전트는 API 키 발급, 수동 승인 과정 없이 x402 프로토콜을 통해 즉시 결제하여 데이터를 구매한다. 앤트로픽, 오픈AI, 트립어드바이저, 블룸버그, AWS, 코인게코 등이 초기 파트너로 참여하여 에이전트 전용 데이터 및 컴퓨팅 리소스를 공급 중이다. x402와 ERC-8004로 에이전트를 위한 표준이 구축되었고 Openclaw 이후 개인이 필요에 따라 여러 개의 에이전트를 가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코인베이스의 Agentic.Market은 에이전트 간 네트워크 공간이며 에이전트 경제의 시작점이다. AI 에이전트 경제 개화에 블록체인의 기여도가 확인된다면 디지털자산 전반의 신뢰 확보와 함께 가격의 상방이 열릴 것으로 예상한다.
- 디지털자산기본법이 계속 지연되고 있으며 지방선거 이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지연 과정에서 한국은행과 전통 금융권 주도하에 CBDC, 예금토큰에 대한 의견 제시, 사업 진행이 예상되기에 단기적으로 국내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들이 개별적으로 부각받을 가능성은 축소되었다. 다만, 글로벌은 국내와 상반된 기조로 이미 사업이 진행 단계에 있으며 하반기 가속화되는 국면에 있기에 국내에서도 제도화에 앞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긍정 의견 유지한다. AI 에이전트 경제, 미국 RWA 시장 개화 사업과 제도는 글로벌과 정합한 수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3년 BTC 가격, 나스닥 지수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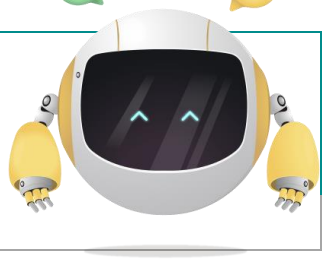
최근 3년 ETH, SOL 가격 추이



자료: Artemis, Refinitiv, 하나증권

Tech&Stock Weekly

2026.04.24



Analyst 김재임 jamie@hanafn.com | Analyst 김시현 sihyun_kim@hanafn.com | RA 송종원 1223sjw@hanafn.com

알파벳,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알파벳(GOOGL.US): 에이전틱 AI 풀스택 구축 가속

8세대 TPU 2종 출시

- 구글이 TPU 8T(훈련용)와 TPU 8I(추론·RL 전용) 2종을 분리 출시. 기존 Ironwood 단일 아키텍처에서 탈피해 워크로드별 특화 구조로 전환
- TPU 8T는 단일 팟 9,600칩, FP4 기준 121 ExaFLOPS로 Ironwood 대비 2.8배. 공유 메모리 2PB 확보로 프론티어 모델 훈련 시간 단축 목표
- TPU 8I는 팟당 1,152칩·11.6 FP8 ExaFLOPS로 256칩 Ironwood 대비 9.8배 성능. 온칩 메모리 캐시로 long-context decoding의 메모리 병목을 해결 시도
- Virgo 네트워크로 13.4만 TPU 칩을 47Pb/s로 연결, 100만 칩 단일 클러스터 운영 가능해짐. NVIDIA Vera Rubin NVL72도 퍼스트 무버로 제공, Virgo에서 GPU 최대 96만개 확장 지원

인텔(INTC.US): CPU 수요의 구조적 부활과 공급 제약 해소로 턴어라운드 본격화

- 1분기 매출 135.8억 달러, EPS 0.29달러 기록하며 컨센을 각각 9%, 2800% 상회하며 어닝서프라이즈 시현
- 2분기 가이던스 매출 138~148억 달러 (컨센 130억), EPS 0.20 달러 (컨센 0.08) 제시하며 시장 기대치 상회
- 1)실적 발표 전 시장에서는 서버 CPU 수요 강세이나 공급 제약으로 업사이드 제한을 예상했으나 DCAI 매출 예상치 상회하며 AI 사업군이 YoY 40% 성장, 전체 매출 60% 차지.
- 공급 제약 이슈 여전히 유효하나 재고 활용, 수율 개선, 외부 파운드리 활용 등으로 예상대비 더 많은 물량 출하 가능했음.
- 2)시장에서는 GPM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추정했으나 예상치 크게 상회. 시장에서 우려한 요인은 신규노드 램프 초기에 수율이 낮고 고정비 부담, 시장가 웨이퍼 가격 전환, Foundry 적자 지속 등이며 GPM을 가이던스(34.5%) 수준 혹은 소폭 상회 예상. 실제 결과는 41%를 기록하며 가이던스 +650bps 초과
- GPM 개선된 주요인: ① 예상 대비 높은 출하량 ② 재고 활용 ③ 제품 믹스 개선 ④ 가격 인상 ⑤ 18A 수율 내부 목표 상회
- 2Q26 GPM 가이던스는 39%로 1분기 대비 소폭 하락 예상. 18A 물량이 6~7배 증가하기 때문. 하반기에는 메모리, 기판, 글라스 등 원자재 비용 상승이 GPM에 부정적 영향 줄 것이나 수율 개선, 믹스 최적화로 상쇄 추진. GPM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언급
- 3) 어드밴스드 패키징 수요가 연간 수십억 달러 규모로 당초 수억 달러로 예상했으나 기대보다 수요가 훨씬 높음. 분기 중 수주잔고 추가 성장, 말레이시아 백엔드 시설 다년 확장 계획 발표. 2027년부터 매출 전환 예정
- 4) CPU TAM 자체의 구조적 확대를 강조. 시장에서는 AMD와 ARM의 점유율 확대에 따른 리스크에 대한 우려 제기되었으나 인텔은 CPU TAM 확대에 따른 수혜 강조.
- CPU: GPU 비율이 학습(1:8) 에서 추론(1:4), 에이전틱(1:1 또는 역전) 방향으로 변화 중
- 5) Capex는 전년대비 동일 수준이나 설비 투자는 +25%. 공간 투자는 대폭 축소하고 웨이퍼 생산 직결 장비 투자를 집중 확대. 수요 대응을 위한 공급 확충 의지 반영

2026년 4월 24일 | Global Equity

필립모리스 (PM.US)

1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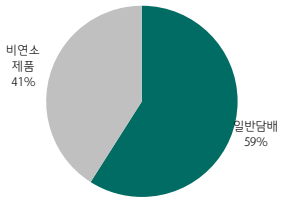
TP(컨센서스)	194.0 USD
CP(4.23)	169.2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필수소비재
주요 영업	담배
홈페이지	www.pmi.com
시가총액(십억USD)	263.7
시가총액(조원)	391.0
52주최고/최저(USD)	191.3/142.11
주요주주 지분율(%)	
CAPITAL GROUP COMPANIES INC	16.96
VANGUARD GROUP	9.33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11.8	6.8	25.9
상대	11.8	(2.2)	10.3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37,878	40,648	43,496	46,215
영업이익	13,402	14,892	17,598	19,053
순이익	7,057	11,348	12,337	13,708
EPS(USD)	5.9	7.5	8.4	9.1
EPS(YOY, %)	(1.3)	(0.1)	11.9	8.4
ROE(%)	-	-	-	-
PER(배)	20.3	21.3	20.1	18.5
PBR(배)	-	-	-	-
배당률(%)	4.4	3.5	3.6	3.8

자료: PMI,하나증권

Analyst 심은주 yesej01@hanafn.com
RA 고찬결 cgko@hanafn.com

1Q26 Re: 시장 기대치 상회

1분기 매출액 및 영업이익은 각각 101.1억달러(YoY 9.1%), 38.9억달러(YoY 9.8%)를 기록했다. 시장 기대치를 상회했다. 1분기 담배(일반+전자) 출하량은 YoY -1.9% 감소했다. 일반담배 출하량은 YoY -5.1% 감소했고, 전자담배 출하량은 YoY 11.3% 증가했다. 비연소제품 매출 비중은 43.0%(YoY %p, QoQ 1.5%p)를 기록했다.

① 전자담배는 'IQOS'가 진출국 합산 점유율 10.9%를 기록하며 'Malboro'를 제치고 글로벌 1위 담배 브랜드가 되었다. 전자담배 매출액은 YoY 12.4% 증가했는데, 일본의 4월 1일 소비세 인상 기인한 선수요가 주효(IMS, In Market Sales: 10.4% 추산)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일본/유럽을 제외한 지역 IMS는 YoY 19.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② 'ZYN' 미국 출하량은 2025년 4분기 재고 소진 영향으로 YoY -23.5% 감소한 1.55억캔을 기록했다. 다만, 닐슨에 의하면 소비자 판매량은 YoY 약 10%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ZYN'의 진출국은 전분기 대비 2개국 증가한 총 58개국을 기록했다. 'ZYN ULTRA' 등 신제품 출시를 통해 시장 지배력를 강화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신제품 출시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 일반담배는 강력한 가격 인상 효과에 기인해 매출액이 YoY 6.7% 증가했다. 반면, 출하량은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 및 1분기 멕시코와 인도의 소비세 증가 영향으로 YoY 5.1% 감소했다.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 호조 지속

1분기 궐련형 전자담배 출하량은 YoY 11.3% 증가한 413억 개비를 기록했다. IMS는 YoY 10.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로는, 일본 IMS가 'IQOS' 판매 호조로 YoY 10.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 IMS는 이탈리아, 그리스 등의 국가 중심으로 YoY 5.4%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 이외 국가 IMS는 'IQOS'의 성공적인 대만 진출을 바탕으로 YoY 19.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궐련형 전자담배 글로벌 점유율은 6.8%(YoY 1.0%p up, QoQ 0.7%p up)를 시현했다. 주요 국가 중 일본 및 한국 점유율은 각각 34.9%(YoY 2.7%p up, QoQ 2.3%p up), 10.0%(YoY 0.8%p, QoQ 0.1%p up)를 기록했다.

2026년 가이던스 유지

필립모리스는 올해 연간 조정 희석 EPS 가이던스(환율 제외)를 8.11~8.26달러로 유지했다. 출하량도 전자담배 high-single 증가 및 일반담배 -3% 감소 전망치를 유지했다. 현 주가는 12개월 Fwd PER 20배로 역사적 상단에서 거래 중이다. 견조한 실적 및 적극적인 주주환원 감안시 중장기적 관점에서 조정시마다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CATL, 글로벌 기술 선도하는 차세대 LFP 배터리 공개

Hana China Weekly | 2026.4.24

Analyst 백승혜 sh_baek@hanafn.com

RA 안기량 giryangan@hanafn.com

주요 이슈 점검

CATL(3750.HK): 글로벌 기술 선도하는 3세대 LFP 배터리 및 플랫폼 기술 공개

- 4/21 CATL이 '창사 이래 가장 기술 집약적'이라고 예고한 'Tech Day 2026'을 개최, 3세대 Qilin 플랫폼(10C 충전·에너지밀도 280Wh/kg), 3세대 Shenxing 초고속 충전 LFP 배터리(10→98% 6분 27초, BYD의 최신 2세대 블레이드 대비 2분 30초 단축), 2세대 프리보이 하이브리드 배터리(순전기 600km·종합 2,000km), #26 초코스왑 배터리(11개 OEM·25개 모델) 등 승용·하이브리드·스왑 전 영역을 아우르는 차세대 제품군을 일제히 공개. 2026년 말 충전, 스왑 통합 스테이션은 4,000개, 2028년 말 공유 보충 시설은 10만개 구축을 목표로 제시. 또한, 영하 30°C 극저온 환경에서의 LFP 배터리 성능(20→98% 충전 약 9-10분 소요)이 BYD의 최신 2세대 블레이드 배터리 기술(-30°C 20→97% 충전 12분) 수준으로 강화.

엔비쿨(002837.SZ): 실적 실망감에 주가 2거래일 연속 하한가 기록

- 엔비쿨은 데이터센터 액체냉각 온도제어 솔루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4월 20일 2026년 1분기 실적을 공개. 매출액 11.8억달러(YoY +26.0%)로 컨센서스 25.8% 하회. 지배주주 순이익 0.9억달러(YoY -81.5%)로 급감. 순이익이 감소에 대한 이유로 엔비쿨 경영진은 1) 해외 사업의 현지 통화 결제 과정에서 위안화 강세로 인한 환차손 발생 및 융자 규모 확대에 따른 이자 비용 증가로 재무비용의 증가, 2) 중국 내 IDC(데이터센터) 건설 속도 둔화로 프로젝트 납기가 길어지면서 대금 회수 주기가 늘어 대손충당금이 증가하였다고 밝힘. 또한, 1분기 매출 구성 변화로 인해 GPM이 YoY 2.16%p 하락. 1분기 수주는 충분했으나, 납기 지연 및 매출 인식 시점 이연으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수준의 외형 성장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4/20 실적 기대감에 주가는 9.4% 급등하였으나 실적 발표 이후인 4/21,4/22 양일간 10.4% 하락.

딥시크(비상장): 창사 이래 최초로 외부 자금 조달 협의 중

- 4/17 The Information에 따르면 딥시크가 창사 이래 최초의 외부 자금 조달에 나서, 최소 100억달러 밸류에이션으로 3억달러 이상 모집을 목표로 투자자와 협의 중이라고 보도. 4/22 SCMP에 따르면 딥시크의 최초 외부 자금 조달은 지분 희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3% 이내의 소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자금 확보보다는 기업가치의 시장 벤치마크를 설정해 스톡옵션 가치를 명확히 하고 핵심 인재 유출을 방어하려는 목적이 핵심. 국가급 대형 펀드의 참여가 예상되며, 기업가치는 당초 보도된 100억달러을 크게 상회해 1,000억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구체적인 투자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으나 모두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로 딜 확정 여부는 미지수.

2026년 4월 24일 | Global Equity

United Rental.(URI.US)

연간 실적 전망 상향, 성수기로 진입합니다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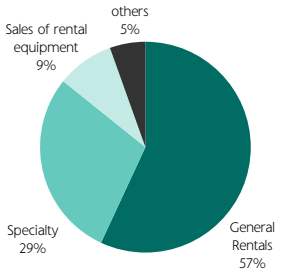
TP(컨센서스)	979.90 USD
CP(4.23)	986.78 USD

Key Data

국가	UNITED STATES
상장거래소	New York
산업 분류	산업재
세부 분류	Rental & Leasing
홈페이지	www.unitedrentals.com
시가총액(십억USD)	62.06
시가총액(조원)	91.93
52주최고/최저(USD)	1,021.47/588.35
주요주주 지분율(%)	
VANGUARD GROUP	11.82
BLACKROCK	8.00

주가상승률	1M	6M	12M
절대	34.8	7.9	52.4
상대	26.8	2.4	22.8

매출구성



Financial Data (백만 USD, USD)

투자지표	2024	2025	2026F	2027F
매출	15,345	16,099	17,066	18,282
영업이익	4,065	3,973	4,366	4,819
순이익	2,754	2,717	2,836	3,166
EPS	43.17	42.06	46.01	52.53
EPS(YOY, %)	6.0	(2.6)	9.4	14.2
ROE(%)	30.7	28.4	29.1	30.2
PER(배)	23.3	26.6	17.5	15.3
PBR(배)	5.3	5.7	5.2	4.7
DPS	6.52	7.16	7.84	8.44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Analyst 강재구
jaekoo.kang@hanafn.com
RA 이재은 jaeeunlee@hanafn.com

미국 데이터센터 및 리쇼어링 수혜주

유나이티드 렌탈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합니다. 미국의 데이터센터 및 리쇼어링 프로젝트 확대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업부가 양호한 성과를 달성했고,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했습니다. 유나이티드 렌탈의 성장 동력은 데이터센터와 리쇼어링 등입니다. 비주거용 건설, 인프라, 전력, 데이터센터, 산업 제조 등 대형 프로젝트 중심의 강한 수요와 성수기 진입을 근거로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습니다.

FY 1Q26 실적: 전 부문 호실적

유나이티드 렌탈의 FY 1Q26 실적은 매출액 40억 달러(YoY +7.2%, QoQ -5.3%), EBITDA 18억 달러(YoY +5.3%, QoQ -7.5%), EPS 9.71 달러(YoY +9.5%, QoQ -12.4%)다. 각각 Factset 컨센서스를 3%, 4.7%, 8.5% 상회했다. 핵심 지표인 Fleet Productivity는 개선됐다. 보유 장비 대비 렌탈 매출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Fleet productivity 개선은 장비 확충뿐 아니라 보유 장비의 렌탈 매출 효율도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평균 Fleet Size는 전년 대비 5.7% 증가했고, Productivity는 전년보다 2.3% 향상됐다.

건설 시장에선 인프라와 비주거용 수요 전반이 좋았다. 산업 시장에선 전력, 광업 등이 양호했는데, 전력 시장에서 두 자릿수 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신규 프로젝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외에도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늘어나는 분야로 헬스케어, 제조업, 인프라 등을 꼽았다. 로컬 마켓은 성장보다는 안정화 국면을 시사했다. 석유화학 시장은 본격적인 회복 국면은 아니라고 했다. 규모상 유의미하진 않지만 2분기엔 월드컵 관련 프로젝트의 주요 파트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FY 2026 연간 가이던스 상향

유나이티드 렌탈은 견조한 수요와 성수기 진입을 반영해 연간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했다. 매출액 172억 달러(YoY +6.5%), EBITDA 78억 달러(YoY +5.8%)를 제시했다. 이전 가이던스 대비 0.6% 높고, 컨센서스를 0.5%, 0.9% 상회한다. 중고 제품 판매 가이던스는 유지했는데, 이를 제외한 매출 성장률은 7% 수준이다. 지난 분기 예상보다 사업 진행이 더 잘되고 있다고 CEO는 강조했다.

자본지출 전망도 46억 달러로 상향했다. 이전 제시한 수치보다 2.2% 늘렸다. 수요가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의사결정이다. 영업현금흐름 전망은 58억 달러로 이전 발표한 가이던스 대비 1.8% 확대됐지만 잉여현금흐름 전망은 유지했다. 자본지출이 늘어날 것을 반영한 것이다. 비용 관리를 강조하면서 성수기인 2~3분기에도 비용에 대해 신경 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부별 매출

매출 항목별 구성은 장비 렌탈 34억 달러(YoY +8.7%, QoQ -4.5%), 렌탈 장비 판매 4억 달러(YoY -7.2%, QoQ -9.3%), 신규 장비 판매 8,400만 달러(YoY +20%, QoQ -22.2%), 그 외 제품 판매 4,000만 달러(YoY +11.1%, QoQ -7%), 서비스 및 기타 매출 9,200만 달러(YoY +1.1%, QoQ +2.2%) 등이다. 렌탈 장비 판매와 서비스 및 기타는 Factset 컨센서스를 8.8%, 1.8% 하회했지만 비중이 낮아 영향은 미미하다. 장비 렌탈, 신규 장비 판매, 그 외 제품 매출은 시장 전망보다 5.2%, 9.5%, 1.8% 견조했다.

장비 렌탈 매출 중 일반 장비 렌탈은 22억(YoY +6.2%, QoQ -4.5%), 특수 장비 렌탈은 12억 달러(YoY +13.8%, QoQ +0.6%) 등으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성장세를 보였다. 일반 장비 렌탈은 비주거용 건설 및 인프라 건설 시장 강세의 수혜를 받았다. 포트폴리오 전반의 판매가 호조를 보였다고 CEO는 설명했다. 일반 장비 렌탈의 매출총이익률은 150bps 개선됐다. 감가상각,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배송비가 매출 대비 낮아진 덕분이다.

특수 장비 렌탈은 전력, 광업, 데이터센터, 헬스케어, 제조 산업, 인프라 등의 투자 수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리포지셔닝 비용 부담은 있지만 전년 대비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CFO는 설명했다. 특수 장비 렌탈 부문은 고성장 사업부지만 비용 구조상 이익 변동성이 다소 있다. 특수 장비 렌탈의 성장 덕분에 이번 분기 자본지출도 특수 장비 렌탈 부문에 집중했다.

단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B금융 (105560.KS)	4/27	157,400	신규	-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삼성SDI (006400.KS)	4/27	641,000	신규	-	• 삼성디스플레이 지분 매각 추진으로 보유 지분 전량 현금화 시 최대 11조원 유입 가능 • 현금 유입으로 유동 비율 1 회복 및 FCF의 플러스 전환 전망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신규	-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한국금융지주 (071050.KS)	4/27	259,000	신규	-	• 국내 증시 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증가로 호실적 기대 • IMA 출시 이후 추가된 조달재원을 기반으로 레버리지 및 운용자산 규모 확대 기대
HD건설기계 (267270.KS)	4/27	194,700	신규	-	• 신흥국 인프라·광산 투자 수요와 호주 등 해외 판매 확대 지속으로 외형 성장 기대 • 2025년 글로벌 건설장비 판매가 3년 간의 역성장을 마무리하고 반등에 성공
알루코 (001780.KS)	4/27	2,540	신규	-	• 알루미늄 압출 수직계열화 기반,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구조물로 성장축 전환 • 장기 배터리 모듈케이스 공급계약 확보로 EV 부품 매출 가시성 확대
심텍 (222800.KQ)	4/27	88,900	신규	-	• 메모리 기판 단가 인상에 따라 2분기부터 가파른 수익성 개선세 전망 • SOCAMM 관련 PCB에서의 기회가 예상보다 클 전망
피에스케이홀딩스 (031980.KQ)	4/27	113,500	신규	-	• 2026년 글로벌 OSAT 업체(Amkor, ASE, SPIL 등)의 리플로우 장비 발주 모멘텀 지속 • HBM·CoWoS 후공정 핵심 장비 Reflow·Descum 수혜 전망
RF머트리얼즈 (327260.KQ)	4/27	92,300	신규	-	• AI 서버·데이터센터용 광통신 패키지(루멘텀향 포함) 수요 급증으로 실적 개선 기대 • 중국산 부품 제재 및 피지컬 AI 시대 통신용 광모듈 수요 확대 기대
코세스 (089890.KQ)	4/27	44,100	신규	-	• 반도체 후공정·레이저 응용장비 기반, AI 패키징 투자 확대 수혜 전망 • Bloom Energy향 SOFC 전극셀 장비 수주로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모멘텀 기대

단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주간(Last Week)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5.81%	+1.29%p	+71.67%	+24.36%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주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글로벌투자분석실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HD현대일렉트릭 (267260.KS)	4/27	1,248,000	신규	-	• AI 데이터센터의 GW급 전력 수요 증가와 초고압 중심의 송전 투자 확대 흐름 지속 • 청주 배전캠퍼스 증설. 배전 제품 포트폴리오 성장 전망
OCI홀딩스 (010060.KS)	4/20	267,500	384,000	43.55%	• 스페이스X와 다년 공급계약 협의 보도로 우주·데이터센터향 신규 수요처 확보 기대감 상승 • 폴리실리콘 CAPA 증설 계획 구체화/가속화에 따른 기업가치 상승 기대
더블유씨피 (393890.KQ)	4/20	16,520	18,630	12.77%	• ESS 중심 출하 회복과 분리막 가격 인상 사이클 진입으로 2026년 하반기 흑자전환 기대 • SK온향 ESS용 LFP 분리막 공급 추진 등으로 고객사 다변화와 중장기 성장 여력 확대 중
SK하이닉스 (000660.KS)	4/13	1,027,000	1,222,000	18.99%	• 1Q26 Preview 매출액 53조원(YoY +203.0%), 영업이익 37조원(YoY +395.0%) 전망 • 빅테크 중심의 HBM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대규모 CAPEX가 동반되며 HBM 수혜 전망
삼성E&A (028050.KS)	4/13	51,200	52,500	2.54%	• 1Q26 Preview 매출액 2.3조원(YoY +11.6%), 영업이익 1,832억원(YoY +16.5%) 전망 • 이란 재건 기대감과 해협 개방에 따른 국내 건축자재 수급 우려 해소 기대
RFHIC (218410.KQ)	4/13	91,900	100,200	9.03%	• 미국 및 국내에서 수개월 내 신규 주파수 할당 공고 및 경매 이루어질 전망 • NXP의 통신 부문 철수와 미국/EU의 중국 장비 규제 강화로 MS 확대 예상
삼성전자 (005930.KS)	4/1	167,200	219,500	31.28%	• AI 수요 견조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DDR4 가격상승과 더불어 NAND 업황 개선 맞물려 • DDR 및 NAND 가격 상승은 레거시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에게 긍정적
두산에너빌리티 (034020.KS)	4/1	91,800	127,100	38.45%	• 글로벌 원전 투자 확대와 체코·미국 등 대형 원전 프로젝트 수주 기대 • 2026년 에너빌리티 부문 가이던스 매출액 7.4조원, 신규 수주 20.3조원 제시
KB금융 (105560.KS)	4/1	141,900	157,400	10.92%	• NIM 상승과 판관비 감소, 충당금 추가 적립 및 과징금 불확실성 해소 긍정적 요인 • 펀더멘털과 주주환원율 측면에서 리딩뱅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POSCO홀딩스 (005490.KS)	4/1	332,500	415,000	24.81%	• 1Q26부터 대수리 영향 해소와 자회사 실적 개선으로 안정적 수익성 회복 전망 • 수입산 철강 규제·중국 생산 규제 수혜로 철강 부문 스프레드 확대 기대
한국항공우주 (047810.KS)	4/1	164,700	171,400	4.07%	• 2026년 말레이시아 2차, 이집트 경전투기 사업 등의 대형 사업 예정 • 2026년 매출 가이던스 5.7조원은 기존 수주잔고를 바탕으로 충분히 설명 가능
키움증권 (039490.KS)	4/1	410,500	449,500	9.50%	• 증시로의 자금 유입 속도를 감안 시 2026년 국내·해외주식 거래대금 견조한 수준 유지 전망 • 실적 변동성과 무관하게 배당 확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 밝혀
LG이노텍 (011070.KS)	4/1	293,500	542,000	84.67%	• 고환율 + 롱테일효과 + 기판 수요 호조로 1Q26 호실적 기대감 존재 • 전장 및 서버용 FCBGA 가동률 상승에 따른 가파른 실적 개선 전망

중장기 투자유망종목 수익률

분기(2Q)		누적(YTD)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수익률	BM대비 수익률
+21.34%	-4.35%p	+44.75%	-2.57%p

주: BM은 KOSPI. BM대비 누적수익률은 일 평균 종목수익률을 BM과 비교 적용한 후 누적 계산. 분기 단위로 Rebalancing. 손절가(Loss cut)는 종가기준 -10%선 적용

ETF 투자유망종목

해외주식분석실

국내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KODEX AI반도체 (395160)	2026.02.27	29,560	32,385	9.6%	•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 양산 본격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한미반도체 등 국내 AI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기업에 집중 투자 • 온디바이스 AI 확산과 AI 서버 수요 폭증으로 인한 메모리 수급 불균형 속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국내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실적 개선 및 가치 재평가 기대
WON 초대형IB &금융지주 (0154F0.KS)	2026.02.24	15,160	14,600	-3.7%	•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및 밸류업 프로그램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되는 대형 증권사와 주요 금융지주 등 핵심 금융주에 집중 투자하는 패시브 ETF • 초대형 IB의 구조적 성장성과 금융지주의 안정적인 배당 매력을 동시에 추구. 미래에셋증권, 한국금융지주, KB금융, 신한지주 등 국내 금융 섹터를 대표하는 우량 종목들로 구성
에셋플러스 코리아 대장장이액티브 (442090.KS)	2026.02.24	25,365	31,390	23.8%	• 전방 산업의 경쟁 심화 속에서 부품, 장비, 소재 등 후방 산업(소부장) 내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장장이 기업들에 집중 투자하는 액티브 ETF • 반도체, 방산, 조선 등 한국의 핵심 수출 산업 밸류체인에서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한 강소기업들을 선별 편입. 국내 주요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과 맞물려 시장 지수 대비 추가적인 수익 창출 기대
PLUS 글로벌방산 (496770.KS)	2025.03.04	13,000	18,980	46.0%	• 미국과 유럽의 주요 방산기업들을 편입하는 종목. 독일 방산업체 라인메탈디펜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스웨덴의 사브 등이 포트폴리오에 포함 • 트럼프 행정부의 NATO 방위비 압박으로 주요국들의 국방비가 증액되는 추세.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구조적 수혜를 누릴 것으로 기대

Global ETF

종목	편입일	기준가	전일종가	수익률	투자 포인트
SPHQ (미국 대형 퀄리티 주식)	2026.03.23	75.80	80.25	5.9%	• 수익성(ROE), 이익의 질(미결제영업자산 변동), 재무 건전성(레버리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S&P500 내 최상위 우량주 100개를 선별해 투자 • 매크로 불확실성 및 실적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에서 탄탄한 펀더멘털을 보유한 기업에 집중해 지수 대비 견고한 하방 경직성과 장기적인 초과 수익 추구
XLE (미국 에너지)	2026.01.02	45.65	56.98	24.8%	• 미국 S&P500 에너지 업종 ETF. 에너지 섹터의 대형주 20여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 ExxonMobil과 Chevron의 비중이 40%를 상회하는 구성 • 트럼프 정부의 중남미 영향력 확장 시도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권 개입 상황이 미국 대표 원유 관련 기업들의 이익 증가 및 자산 회복 기회로 연결될 가능성. 유가 모멘텀은 제한되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들의 개별 요인 주목
SMH (글로벌 반도체)	2025.11.24	339.12	481.85	42.1%	• 대형주 비중이 높은 대표 글로벌 반도체 ETF. 매출의 50%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생산 분야에서 발생하는 기업들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편입 • 엔비디아의 실적과 가이던스를 통해 AI 산업의 꾸준한 성장 모멘텀 확인. SMH는 NVIDIA와 TSMC가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 Capex 경쟁 지속 가운데 소버린 AI 시장 확장, 신제품 교체 기반의 견고한 수요 기대 유효
MADE (미국 제조업 기업)	2025.10.27	30.66	37.12	21.1%	• 미국 내 매출비중 조건 반영. 중대형 제조업, 제조업 관련 기업들로 구성된 ETF • 관세 구조와 트럼프 정책의 지속성에 초점. 상호관세는 협상 여지가 있는 반면, 품목관세는 협상 가능성이 낮아 장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공급망의 리쇼어링 현상 확대 전망. 정책 수혜 및 내수 익스포저 기반의 수혜 기대

주: 기준가는 편입일 당일의 종가, 전일종가는 한국 시장 3시 30분 기준.

Calendar

글로벌투자분석실

SUN	MON	TUE	WED	THU	FRI	SAT
4.19	4.20	4.21	4.22	4.23	4.24	4.25
	▪ 유로권 2월 건설 생산 (-0.2, 이전치 -0.1%)	▪ 미국 3월 소매판매 (1.7%, 2월 0.60%) ▪ 미국 2월 기업재고 (0.4%, 이전치 -1.0%) ▪ 미국 3월 미결주택매매 (1.5%, 이전치 1.8%) ▪ 한국 4월 전년비 수출/입 (49.4%/17.7%, 이전치 50.4% /19.7%) ▪ 독일 4월 ZEW 서베이 예상 (-17.2%, 이전치 -0.5%)	▪ 한국 3월 전년비 PPI (4.1%, 2월 2.40%) ▪ 일본 3월 무역수지 (¥667.0B, 2월 ¥57.3B) ▪ 일본 3월 전년비 수출/입 (11.7%/10.9%, 이전치 4.2%/10.2%) ▪ 유로존 4월 소비자기대지수 P (-20.6, 3월 -16.3) ▪ ECB's Lagarde Speaks (London)	▪ 한국 GDP 전기대비 (1.7%, 이전치 -0.2%) ▪ 한국 4월 소비자심리지수 (99.2, 이전치 107) ▪ 미국 4월 제조업 PMI (E 52.8, 이전치 52.3) ▪ 미국 4월 서비스업 PMI (E 50, 이전치 49.8) ▪ 캔자스시티 제조업활동 (E --, 이전치 11) ▪ 일본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1.6) ▪ 일본 4월 서비스업 PMI (E --, 이전치 53.4) ▪ 유로존 4월 제조업 PMI (E 50.5, 이전치 51.6)0 ▪ 유로존 4월 서비스업 PMI (E 49.5, 이전치 50.2)	▪ 일본 3월 전년비 CPI (E 1.8%, 이전치 1.60%) ▪ 일본 3월 전년비 CPI ▪ 미국 4월 미시간대학교 소비자신뢰지수 지수 (E 48.3, 이전치 47.6)	
4.26	4.27	4.28	4.29	4.30	5.1	5.2
	▪	▪ 일본 3월 실업률 (E --, 이전치 2.60%) ▪ 일본 3월 유효구인배율 (E --, 이전치 1.19) ▪ 미국 4월 CB 소비자기대지수 (E 88.8, 이전치 91.8) ▪ BOJ 정책 금리 (E --, 이전치 0.75%)	▪ 미국 3월 내구재 주문 (E 1.0%, 이전치-1.3%) ▪ FOMC 금리 결정 (E 3.50~3.75, 이전치 3.5~3.75) ▪	▪ 유로존 4월 GDP SA (E --, 이전치 0.2%) ▪ 유로존 4월 CPI(전년대비) (E --, 이전치 2.6%) ▪ 유로존 4월 CPI(전월대비) (E --, 이전치 1.3%) ▪ 유로존 3월 실업률 (E --, 이전치 6.2%) ▪ 미국 4월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E --, 이전치 --) ▪ 미국 1분기 GDP SA(전기대비) (E --, 이전치 0.2%) ▪ 중국 4월 제조업 PMI (E --, 이전치 50.4) ▪ 중국 4월 종합 PMI (E --, 이전치 50.5)	▪ 한국 4월 수출 YoY (E --, 이전치 48.30%) ▪ 미국 4월 ISM 제조업 지수 (E --, 이전치 0.75%)	

주: 1) 괄호 안은 예상치(E), 전월 순, 한국시간 기준 (*E)는 당사 추정치. 2) 유로권, 북미는 전월대비(PCE 디플레이터는 전년동월대비), 아시아, 신흥국은 전년동월대비 기준, 3) P(속보치), A(잠정치), F(확정치)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의 압력이나 부당한 간섭을 받지않았으며,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여 신의성실하게 작성하였습니다.
-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회사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담당자는 현재 해당회사의 유가증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